

특기세 2023



제59호
2023

- 4 **머리말**
 100년을 향한 비전
 (조정구)
- 5 **안녕! 우리말**
 모두의 말뭉치
 (홍보부)
- 8 **2022년 네덜란드 인터스테노**
 2022년 제53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 보고
 (국제부)
- 20 **기획특집**
 제29회 한글속기 학술세미나
 제1주제 : 속기사법 제정과 대한속기협회 발전방안
 제2주제 : ChatGPT의 활용
 제3주제 : 속기산업 활성화 방안
- 87 **연구논문**
 수요자 중심의 국회회의록 서비스 발전방향
 - 2022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 145 **회원동산**
 속기학원은 천직이다
 (이수만 원장)
- 158 **협회동정**
 제56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 블로그 개설
 2023 제1차 지방의회 속기실무과정 연수
 2023년 9월 인터스테노(프랑스 보르도) 참가 예정

100년을 향한 비전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제29회 제주도 한글속기세미나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에 출범하여 현재 68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년을 향한 큰 발걸음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22대 국회에서 속기사법 입법을 통해서 ▶법정단체로의 전환,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확보, ▶수익구조 창출과 처우개선, ▶기록문화의 질적향상 등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둘째, 속기와 AI간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서 AI에 의한 기록물에 생명력과 속기의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속기무용론’을 불식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주요선진국으로 구성된 국제속기연맹(인터스테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인터스테노총회의 한국유치를 통해서 ‘k-한글’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회장 **조 정 구**

- 정안노무법인 대표
-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 이사
- 한국언론사협회 노동법률 고문

‘말뭉치’를 아시나요?

홍보부



안녕! 우리말

‘말뭉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 언어 연구를 위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놓은 언어 자료. 매체, 시간, 공간, 주석 단계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Big Data를 순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것이 ‘말뭉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립국어원은 국가 공공재로서 국어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의 대규모 구축(원시 말뭉치 18억여 어절 등)에 이어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최신의 언어 자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와 일상 대화 원시 말뭉치는 매년 구축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에 대응한 다양한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공개하는 상시 구축 체제로 전환하였다.

2022년에도 활용성이 높고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신문, 일상 구어 자료와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말뭉치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인공지능의 언어능력 평가를 위한 말뭉치(5종)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외국어 병렬말뭉치를 1,000만 어절 규모로 확장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말 현재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된 말뭉치 총 23종 21억 어절이 배포되고 있는데 2022년에도 2021년에 구축한 신문 기사, 일상 대화, 온라인 대화 등의 원시 자료와 개체명 분석 말뭉치, 개체 연결 말뭉치, 감성 분석 말뭉치, 합의 분석 말뭉치, 회의록 요약 말뭉치, 유사문장 생성 말뭉치, 맞춤법 교정 말뭉치 등의 분석 말뭉치를 검증하여 1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번호	과제명	과제 운영 기간	상태
1	확산성 주판(시범 운영 과제)	2023.02.13. ~ 2023.12.31.	신청 접수 중
2	그림(사인) 기반 문장 생성(시범 운영 과제)	2023.02.13. ~ 2023.12.31.	신청 접수 중
3	속성 기반 감성 분석(시범 운영 과제)	2023.02.13. ~ 2023.12.31.	신청 접수 중
4	원오 발언 탐지(시범 운영 과제)	2023.02.13. ~ 2023.12.31.	신청 접수 중

말뭉치 등 국어 자원 구축 및 통합 관리, 유통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말뭉치 통합시스템은 2018년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19년~2020년에 말뭉치 검증시스템과 대량 말뭉치의 구축 관리, 배포, 유통 기능을 개발하였다. 2022년에는 말뭉치별 저작권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다양한 활용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배포, 유통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시범 운영 결과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어 능력 상시 평가체계를 말뭉치 통합 시스템에 도입할 계획인데, 이 평가체계는 소규모 과제 등을

사용한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한국어 능력 진단 기준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국어 이해·추론 능력을 경쟁할 수 있도록 과제를 다양화하고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훈련용 말뭉치(학습자료) 및 진단용 말뭉치(평가문제) 구축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수시로 자신의 시스템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국어 능력 상시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말뭉치상의 오류를 상시로 점검·정비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연 2회), 말뭉치 형식 및 기본 정보 정의·자료 간 연계 방안 연구와 말뭉치 만족도 조사(연 1회)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어자원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언어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산·학 협업 체계 구축하고 연구·발굴→구축·배포→현장 활용의 환류체계 유관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인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시대에 한글의 빅데이터(말뭉치) 사업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우리도 아날로그 속기에서 디지털 속기로, 또 음성인식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 2021.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https://corpus.korean.go.kr/request/reasetMain.do>)

Korea Stenography Association

제53차 인터스테노 총회

결과보고서



2022. 8. 6. ~ 8. 11.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I. 참가 내용

1. 참가 목적

- 각국 의회의 회의록 작성 시스템과 속기제도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속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의회의 운영방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자동음성인식을 도입한 핀란드 의회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2. 참가 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2. 8. 6. ~ 8. 11.(5박 6일)
- 장 소: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3. 참가단(6인)

- 단 장: 손숙자(이사장)
- 단 원: 정숙, 최연환, 정영도, 김종열, 최진영

4. 참가 인원 및 참가국

- 참가인원: 24개국 약 250명
- 참가국: 네덜란드, 독일,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캐나다,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5. 전체 일정

일시	프로그램	장소
8월 6일(토)		
08:00-13:00	참가자 등록	Crowne Plaza-Pomerol
17:00-20:00	개회식	Maaspromenade 58
8월 7일(일)		
11:00	리얼타임 경기대회(RT)	Ceramique
12:30	텍스트 프로덕션 경기대회(TP)	Ceramique
17:30	오디오 속기 경기대회(AT)	Ceramique
18:00-19:00	IPRS 그룹 회의	Crowne Plaza
8월 8일(월)		
09:30-12:00	IPRS meeting	Ceramique 1
13:00-15:30	마스트리흐트 지방정부 방문	Provinciehuis
8월 9일(화)		
09:00-13:00	Diamesic Conference	Bordeaux
17:00-19:00	Council meeting	Bordeaux
20:00	Council dinner	Thiessen
8월 10일(수)		
09:30-10:30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Ceramique
11:00-12:30	인터스테노 총회	Ceramique
13:00-15:00	과학위원회 및 Tiro 편집위원회 meeting	Pomerol
20:00	송별만찬	Ipanema Maastricht

II. 일정 및 내용

1. 개막식(8월 6일)

□ 제53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Crowne Plaza에서 개최되었으며 개막식은 뉘르강을 왕복하는 크루즈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개막식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다.

- 24개국 250명의 참가자들이 Crowne Plaza부터 Rederij Stiphout 선착장까지 뱃길을 따라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인터스테노 주제가인 ‘Verba Manent’를 부르며 행진했다.
- 개막식은 리안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카를로 과학위원장의 사회로 24개국 대표들이 국기를 들고 모국어로 인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손숙자 단장이 인터스테노에 참가한 소회를 밝히며 인사했다.
- 마지막 순서로 2022 인터넷 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메달과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ML을 제외한 7개 종목의 대회가 실시되었다. 그중 WP와 NT는 동시에 진행되어 1인이 최대 6개 종목까지 참가할 수 있는데 올해는 3명의 시니어 회원과 2명의 주니어 회원이 6개 종목에 참가했다.
- 종목별 상위권 국가는 아래 표와 같으며, 각 종목에 참가한 성적을 모두 합산한 결과 체코의 토마스 포르티흐가 1위를 차지했다.

2. 속기경기대회(8월 6일~7일)

- 인터스테노 경기대회는 Speech capturing(SC), Text production(TP), Realtime Speech Capturing(RT), Text Correction(TC), Note taking & reporting(NT), Professional word processing(WP), Audio transcription(AT), Multilingual Speech Capturing(ML) 총 8개 종목이다.
-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ML을 제외한 7개 종목의 대회가 실시되었다. 그중 WP와 NT는 동시에 진행되어 1인이 최대 6개 종목까지 참가할 수 있는데 올해는 3명의 시니어 회원과 2명의 주니어 회원이 6개 종목에 참가했다.
- 종목별 상위권 국가는 아래 표와 같으며, 각 종목에 참가한 성적을 모두 합산한 결과 체코의 토마스 포르티흐가 1위를 차지했다.

	TP		TC	WP	AT	SC	RT	NT
	속기 키보드	일반 키보드						
1위	네덜란드	터키	폴란드	독일	미국	헝가리	미국	체코
2위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체코
3위		터키	체코	독일	터키	핀란드	미국	체코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료가 폭등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속기경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3. IPRS 관련(8월 8일)

(1) IPRS(의회 및 기록전문가부: Interstemo other Parliamentary and professional Reporters Section) Meeting

□ IPRS meeting은 아래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Session on Online Reporting

1. Henk-Jan Eras와 Deru Schelhaas(네덜란드)
: Crisis? What crisis? -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for (parliamentary) reporters(의회 기자들을 위한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
2. John Vice(영국)
: 'Can you hear me?': Reporting virtual and hybrid parliaments(내 말 들리니? : 가상 및 하이브리드 의회)

Session on Ainline Reporters

1. Corinne van Dijk(네덜란드)
: Corrections of speakers in the digital era(디지털 시대의 발언자의 정정)
2. Anneke Faaij(네덜란드)
: Control and Support: supporting parliamentary reporters and everyone else(관리 및 지원: 의회 기자 및 그 밖의 모든 사람 지원)
3. Carlo Eugeni(이탈리아)
: How live subtitles can help reporters in speeding up their job - the case of the Rome Capitol(실시간 자막이 기자의 작업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 - 로마 국회의사당 사례)



- 세션 첫 번째인 네덜란드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에서 제기했고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은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일까? 대략적으로 의회에서는 ①하이브리드 또는 가상 의회를 운영하거나 ②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서 시행했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한 브라질 하원과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한 네덜란드 하원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코로나19가 의회의 디지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발표 결과이다.
- 다음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직장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했을 때 하이브리드 또는 가상 의회를 운영한 영국 상·하원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술적 결함 또는 예상치 못한 영상으로 인하여 회의록 또는 보고서(기자)에 ‘연결 끊김’ 문구가 많아졌다고 발표했다.
- 세션 두 번째, 네덜란드 의회에서는 2010년 기록지원시스템인 VLOS를 도입했는데 VLOS는 속기사(기자)들의 업무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모든 단계의 작업을 디지털화시켰다. 그러나 VLOS 오작동을 대비하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지원 부서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는 뉴스룸이나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환경과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 다음 이탈리아는 로마 의회의 사례를 들어 실시간 자막이 속기사(기자)들의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자동음성인식으로 생성된 자막과 다시말하기(respeaking) 방식으로 생성된 자막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실시간 자막에서는 다시말하기 방식이 자동음성인식보다 정확하지만 느리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2) 지방의회 방문

- IPRS meeting을 끝마친 각국 대표단은 유럽연합(EU)을 탄생시킨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체결 장소로 이동했다. 지방의회 건물이 있는 Limburg 정부 청사는 1983년과 1985년 사이에 Randwyck 지역의 Maas섬에 건축되었는데 현재는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1993년 11월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12개국(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서독,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가 참가하여 출범한 기구이며 현재 19개국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Limburg 지방의회에는 다양한 주 위원회가 있으며 각 주 위원회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22명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소규모 내부 위원회와 외부 협의체를 두어 경제, 노동시장, 교육, 환경 등 17개 위원회에서 지방행정관의 정책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4. Diamesic Conference 과학위원회 회의(8월 9일)

□ Diamesic Conference는 아래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Session on Accessibility(접근성)

1. Eero Voutilainen(핀란드)
: Linguistic accessibility in professional reporting(전문보고의 언어적 접근성)
2. Carlo Eugeni(이탈리아)
: Easy-to-Read language as a tool for democratic accessibility to parliaments(의회의 민주적 접근을 위한 도구로서의 E2R 언어)

Session on ASR(자동음성인식)

1. Niklas Varisto and Riikka Kuronen(핀란드)
: Introducing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t the Parliament of Finland(핀란드 의회 자동음성인식 소개)
2. Dan Kerr(캐나다)
: Automated Speech Recognition: Embracing the Benefits and meeting the Challenges(ASR의 장점을 수용하고 도전하기)

Session on Research(연구)

1. Andrea Wawrzynek(헝가리)
: Previous experience and predispositions for successful typing(성공적인 타이핑을 위한 이전의 경험과 경향)
2. Vittoria Ghirardi(이탈리아)
: Speech handling - A multimodal analysis of simultaneous interpreters' gestural behaviours(음성 처리 - 동시통역자의 제스처 행동에 대한 다중모드 분석)

Session on Shorthand(속기)

1. Boris Neubauer(독일)
: Shorthand Systems for the Ukrainian Language(우크라이나어에 대한 속기시스템)
2. Jonaš Vala(체코)
: From Graphic to Machine Shorthand in Czech(체코어 속기기계)

□ 세션 첫 번째인 핀란드 의회에서는 2022년 2월부터 ASR(자동음성인식) 시스템을 채택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속기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2명의 직원이 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을 메모하면 사무실의 속기사들이 디지털 오디오 녹음을 사용하여 초안을 작성했고 나중에 편집자들이 회의록을 완성했다. 그러나 속기사가 부족하여 의회속기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모든 편집자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국에서 많은 양의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ASR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ASR 시스템 도입 후 기록국 속기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배분하여 속기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게 했지만 의원들의 발음이나 억양의 다양성 때문에 음성인식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편집자들의 업무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 다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회도 ASR의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ASR을 시행한 목적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자는 것이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첫 번째, 속기사라는 직업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가 속기사라는 직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회만의 특정 전문용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편집 관점에서 볼 때 ASR은 텍스트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편집자가 직접 회의장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ASR 시스템의 도입은 속기사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 주고 편집자의 빠른 작업 수행을 도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5. 총회 및 중앙위원회(8월 9일~10일)

- 제53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원래 2021년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올해 열리게 되었다.
- 총회 시작에 앞서 Dale Biggers, Manfred Durhammer, Nora Berezina 및 Csilla Hegedus와 같은 인터스테노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묵념하였다. 또 리안 회장의 2019년 칼리아리 총회 이후의 인터스테노 운영에 관한 보고, 대니 사무총장의 결산 및 다음 회기(2023~2025)의 예산 보고가 있는 후 해당 안건은 의결됐다.
- 회비는 45€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되었고, 현 이사회와 심사위원 모두 연임되었다. 이사회 멤버는 아래와 같다.

직책	이름
회장	Rian Schwarz-van Poppel
부회장	Russell Page
부회장	Emrah Kuyumcu
심사위원장	Georgette Sante
과학위원장	Carlo Eugeni
사무총장(사무 · 재정)	Danny Devriendt
멤버	Krystian Wawrzynex

- 2023년 10월 중앙위원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던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년 총회 개최지 관련해서는 폴란드 카토비체와 영국 리버풀이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최종 결과는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6. 폐막식(송별만찬, 8월 10일)

- 폐막식을 겸한 송별만찬이 뫼즈강의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Ipanema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은 모처럼 만의 만남을 반가워하며 프랑스 보르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했다.
- 리안 회장, 대니 사무총장, 카를로 과학위원장 등에게 한국에서 준비해 간 기념품을 전달하니 모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했다.



II. 성과 및 시사점

□ 2022년 현재 세계기록유산을 22건이나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기록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록정신과 기록시스템을 인터스테노에서도 유감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각국 의회가 의회 운영 및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또 속기사 채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핀란드 의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ASR(자동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ASR시스템은 4차혁명시대에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기류가 다수였다. 물론 ASR 시스템이 속기사(기자)의 신체적·물리적 부담을 줄이고 또 업무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속기사라는 직업의 안정성, 의회 전문용어 처리, 의원들의 발음(ex 사투리) 및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의 해결 여부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 속기경기대회는 1인이 여러 종목에 참여하여 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속기경기대회에서 주니어와 시니어를 포함해 5명이 최대 6종목까지 참여하여 입상했다.

우리나라도 속기경기대회 종목에 대한 사전조사 및 훈련을 통해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고 입상해서 대한민국 속기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기획 특집

제29회 한글속기 학술세미나

2023년 6월 27일(화) ~ 6월 28일(수), 위호텔 제주

[목 차]

제1주제 : 속기사법 제정과 대한속기협회 발전방안 (장미경) 21

- I. 대한속기협회 현황
- II. 법률 제·개정의 접근 방식
- III. 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 IV. 맺음말

제2주제 : 챗gpt의 활용 (이순영) 51

제3주제 : 속기산업 활성화 방안 (유덕자) 77

- I. 개요
- II. 속기산업의 활동분야
- III. 속기산업의 활성화
- IV. 맺는 말

제1주제

속기사법 제정과 대한속기협회 발전방안

장미경

I. 대한속기협회 현황

1. 대한속기협회의 역사

-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로 창립했으며, 57년 '대한속기협회'로 개정했고, 69년 문화공보부인가 138호 사단법인이 되었음.
- 83년 국제속기타자연맹(INTERSTONO)에 가입하고, 93년에는 국제속기타자연맹(INTERSTONO) 의회속기사부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속기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93년 문화체육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았으며, 1997년부터 문화체육부의 국고지원을 받음으로써,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속기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속기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

2. 속기사 현황

- 속기(Shorthand, Stenography)는 단순히 빨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특수 분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업무를 의미함.
-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음.
- 현재 속기사는 주로 국회·지방의회·법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검찰청·교육청·군(軍)에서 속기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자막방송 속기 등 특수분야 그리고 속기사무소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 속기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속기자격증 소지자는 1만여 명(2022.12.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속기 관련 산업 종사자는 약 6,500여명으로 추정됨.

속기 관련 산업 종사자 현황

구분	국회·지방의회	법원·검찰 등	자막방송 종사자	사업자·프리랜서	합계
인원	약 1,000명	약 2,000명	약 500명	약 3,000명	약 6,500명

3. 속기시험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필요성

-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수법인은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이나 특별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 특수법인은 별도의 법률¹⁾에서 규정을 두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적 사무의 수행과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인의 존속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형 특수법인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경우회(대한민국경우회법), 경찰공제회(경찰공제회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사례가 있음.

「민법」상 사단법인과 특수법인 비교

구분	사단법인	특수법인
명칭	대한속기협회	대한속기사회
정의	민법에 의하여 설립(다수 사람들의 결합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목적	일정한 공동의 목적 추구	국가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 추구
업무	구성원의 단체 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국가정책 또는 공익업무
재원	회비 및 기부금, 수익사업 등	회비, 사업수입,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 (법률에 근거 명시)
조직	중앙회(본부), 지방조직	좌동
의사결정	총회 및 이사회	좌동
감독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실시	법률에 관리감독 근거 명시

- 현재 속기분야는 속기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음성인식 등 AI로 인한 속기시장의 감소 위협으로 속기의 장기적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2006년 보존·관리 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명칭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속기 관련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 AI속기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과 ‘지능형 속기’ 기능을 탑재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역·번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속기는 속기사에게 위협요인이 되기도 함. 그러나, 현장 분위기를 비롯해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AI가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음성인식 속기를 통해 반복되는 입력 작업은 자동 처리하고, 수정·검수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속기사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속기사의 업무환경이 더 편리해지는 등 AI는 속기의 보조도구라는 인식 또한 존재함.
- 속기인들의 권익향상과 속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속기사협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속기협회는 ㉠ 속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 음성인식 기술 등 속기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속기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 속기사 간 교류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건전한 업무질서를 확립하고, ㉣ 해외 각국의 기록문화를 파악하고 한국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교류 확대 사업을 수행함.

II. 법률 제·개정의 접근 방식

-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는 목적은 속기 서비스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속기사무소의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현행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발전시키느냐가 목적임.
- 현 시점에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의 특수법인화가 논의될 수 있음.
- 특수법인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를 법률에 규정된 ‘특수법인 속기사협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 등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해서 ㉠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와 ㉡ 특정 정책분야의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가운데 관련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자의 규정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효과는 동일함.²⁾
-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특수법인인 속기사협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속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개별 법률을 개정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특수법인이 됨.
- 개별 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률처럼 ‘(가칭)속기사법’을 제정하여 속기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특수법인인 속기사협회를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제정 법률안은 상임위 축소심사 생략이 불가(국회법 제58조제5항)하고, 공청회를 개최(국회법 제58조제6항)하여야 하는 등 법률 개정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음.
- 특수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현행 법률 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1개 조문만 개정하면 가능하나, 제정 법률은 「속기사법안」으로 10여개의 조문이 필요함.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公社)’임.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 제정 방식 비교

구분	개정 법률안	제정 법률안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기사법안」			
내용	제42조의2 (대한속기사회)	제1조	목적	제7조	속기사협회
		제2조	정의	제8조	비밀 엄수
		제3조	직무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	속기사 자격시험	제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1조	벌칙
		제6조	속기사자격시험 심의위원회	제12조	과태료
부칙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아래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Ⅲ)’ 부분에서는 제정 법률안인 「속기사법안」을 기준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Ⅲ. 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규정

□ 목적 규정은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³⁾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임.

- 목적 규정은 개별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지침으로서 기능을 함.

□ 「속기사법안」의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먼저 밝히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³⁾을 기술하는 방식³⁾을 적용함.

3)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은 ㉠ 입법목적을 밝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함께 기술하는 방식, ㉡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먼저 열거하면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기술하는 방식, ㉢ 입법목적만을 기술하는 방식 등이 있음.
- 따라서, 목적은 ‘속기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속기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정

-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하는 것임.
- 법률에 정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는 것임.

가. 속기

- ‘속기’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닐지라도, 사전의 뜻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국어사전에서 ‘속기(速記)’를 ㉠ ‘빨리 적음’ 또는 ㉡ ‘속기법으로 적는 일 또는 그런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속기 한자어 뜻을 단순히 풀어놓은 것에 불과함.
- 국회에서는 속기를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자기의사를 특정의 부호문자로서 언어속도와 일치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 일반문자화하는 활동을 총칭’한다⁴⁾고 정의하고 있음.
- 대검찰청예규(제639호)인 「속기업무 운용준칙」에서는 ‘속기’를 ‘무형의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속기장비의 약어 기능을 이용하여 한 자 이상의 글자를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과 동시에 한 자 이상의 한글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4) 국회사무처, 『속기개관』, 1969, pp.8~9.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속기’의 정의⁵⁾를 참고하여 ‘속기’를 ‘특정한 부호 또는 특정한 기계를 이용하여 음성언어를 기록한 후 이를 다시 일반 문자로 변환하는 것’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기”란 특정한 부호 또는 특정한 기계를 이용하여 음성언어를 기록한 후 이를 다시 일반 문자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속기사

□ ‘속기’가 정의되었으므로, 이를 수행하는 ‘속기사’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앞서 자격⁶⁾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국가자격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음.

□ ‘속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함.

자격의 구분

구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개별 법률	「자격기본법」	
개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유형	• 국가자격 중 산업 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	•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 • 「변호사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운영	공인자격	등록자격
			•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자격	•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직업능력개발원	
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46개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174개	인터넷정보 관리사, 실천예절지도사 등 95개	커피바리스타, 아동심리상담사 등 47,915개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2018.12.17. <재구성>

5) 속기란 음성언어를 특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한 후 이를 다시 문자언어화하는 과정이다.((사)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6) 자격이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가능하며, 어떤 직무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근로자가 특정한 수준의 숙련이나 자질을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강경식,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 2012.02. p3).

□ 속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두 속기사라 규정할 수는 없고, 일반 자격 관련 법률⁷⁾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속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이므로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속기사라는 명칭이 부여될 것임.

○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국가기관 등의 속기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일부 속기 능력을 갖춘 자가 속기사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속기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속기사는 원칙적으로 ‘속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속기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속기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속기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직무

□ 직무규정은 속기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규정임.

○ 법률에 직무 범위를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속기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함.

□ 개별 법률에서 어떠한 사항은 속기로 작성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도 있지만, 회의록 또는 요약문을 작성하기는 하나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법률도 있음.

□ 따라서, 「속기사법안」에서는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법률 등을 속기사의 직무 범위로 함과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속기를 규정하였거나 속기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등을 속기사의 직무 범위로 함.

○ 회의록 등을 반드시 속기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안 제3조제1호), 회의록·속기록·녹음(영상) 기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있어서 속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폐쇄자막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호)은 속기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함.

7) 「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속기를 규정한 사항(안 제3조제9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⁸⁾」과 같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속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예로 들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라 속기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안 제3조제10호)은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정기록과장의 업무⁹⁾나, 「속기업무 대외지원에 관한 지침」(국회사무처 예규)에 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 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될 것임.
- 그리고, 그 밖에 속기 등으로 기록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제3조(직무의 범위) 속기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국회법」 제69조제2항 및 제1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 본회의 의사 속기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¹⁰⁾에 따른 속기록 작성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공판정에서의 속기
4.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른 공판정에서의 속기
5.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른 변론에서의 속기
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판정에서의 속기
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심판정에서의 속기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폐쇄자막 작성
9. 다른 법령에 따라 속기를 규정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속기사(속기사로 구성된 부서를 포함한다)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기록

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의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 · 보존해야 한다.

9)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사국에 두는 과)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의정기록1과장과 의정기록2과장의 분장 사항을 말함.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 · 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4. 속기사 자격시험 등

- 자격제도는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이 있음을 공증하는 제도임.
- 자격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분야에는 자격자에게만 업무 또는 영업상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격제도, ㉡ 특정 업무의 수행 또는 영업활동을 자격자만이 하도록 하지는 않으나 자격자에게 특정 자격명칭을 부여하여 기술·기능 등을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직업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격제도가 있음.
- 응시자격의 제한(결격사유)은 특정 자격의 취득 시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 이는 자격 취득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통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응시자격의 제한은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함.
- 「속기사법안」은 유사 자격법과 같이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안 제4조제1항), ㉡ 부정합격자를 무효화시키고 5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하며(안 제4조제2항·제3항), ㉢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안 제4조제4항·제5항), ㉣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함.

제4조(속기사 자격시험)

- ① 속기사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속기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된 사람은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된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속기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가 참여하여 합의 또는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는데, 각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기능이 상이함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위원회는 ㉠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 ㉡ 분쟁조정기관인 위원회, ㉢ 의결기관인 위원회, ㉣ 심의기관인 위원회, ㉤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음.
- 법률에 위원회를 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먼저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주체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협의·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자문·협의의 결과가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는 않음.
-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서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속기사법안」의 속기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속기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하는 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원회의 주요 업무사항만 규정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함.

제6조(속기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

- ① 속기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속기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속기사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2. 속기사 자격시험 과목의 난이도 결정
 3. 시험선발 인원의 결정
 4. 그 밖에 속기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
- ② 속기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대한속기사회

가. 특수법인의 설립

□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수법인¹¹⁾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 국가적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한 종래의 특수법인의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민법」과 「상법」의 규정만으로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형태 내지 기능과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국가에 의해서 설립되므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며,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사무의 수행과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인의 존속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임.

□ 「속기사법안」에 규정될 특수법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협회의 법인격)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법률에서 해당 특수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속기사는 속기사의 품위 유지, 기술 향상 등을 위해 속기사회를 설립할 수 있되, 속기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2항)

○ 특수법인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법인격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법인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시하는 행위로서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속기사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7조제4항)

○ 속기사는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해당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¹²⁾함.(안 제7조제6항)

□ (협회의 업무) 특수법인은 법률에서 특수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¹³⁾

○ 속기사회는 ‘속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7조제3항)

11) 법률상 특수법인의 형태로는 공사, 공단이 대표적이며, 연구원, 협회, 공제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되고 있음.

12) 특수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이사의 정원, 이사회회의 소집·의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13) 특수법인의 업무 범위는 법률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함.

- 속기사회가 정관으로 업무를 변경하려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안 제7조제4항 후단)
- (협회의 경비) 속기사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협회의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속기사회는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둬.(안 제7조제5항)
- 다만, 행정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제7조(속기사회)

- ① 속기사는 속기사의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속기 방법 개량, 그 밖에 속기의 발전을 위하여 속기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속기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속기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속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속기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속기 기술(음성인식 기술을 포함한다)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속기사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속기문화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속기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회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속기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특수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 특수법인의 설립 근거가 법률에 마련된 경우, 종전 「민법」상 법인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종전 법인이 해산되고 새로운 특수법인이 기존의 법인을 승계하는 경우 '신법인'과 '구법인'의 관계 등을 경과조치로 규정함.
- 법률의 제정으로 종전의 규제하는 대상의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적 이행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구 규정 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해 경과조치를 둬.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종전의 「민법」상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종전 법인의 의사결정과정 없이 바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¹⁴⁾, 여기서도 이 방식을 따름

-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의제) 부칙을 규정한 취지가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속기사회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므로, 사단법인인 대한속기사회를 특수법인인 속기사회로 보도록 의제하는 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
- (특수법인의 정관 허가 및 설립등기) 「민법」상 법인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특수법인의 설립목적 등에 따라 임원의 임명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주무부장관의 개입이나 감독도 강화되는 면이 있으므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¹⁵⁾를 받고, 설립등기¹⁶⁾를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법인이 종전 「민법」상 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일에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 (종전 민법상 법인의 소멸) 안 부칙 제1조에 따라 전환 방법이 결정되고 특수법인의 실체를 형성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특수법인으로 승계되면 일반법인은 그 이름만 남고 실체는 없어지게 되므로, 여기서는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와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부 칙

제2조(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이하 “대한속기협회”라 한다)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속기사회로 본다.
- ② 대한속기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속기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대한속기협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속기사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속기사회는 설립등기일에 대한속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⑤ 대한속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용회복위원회(부칙 제8조, 제14095호, 2016.03.2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경영기술지도사회(부칙 제8조, 제17242호, 2020.04.07.) 등.

1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6)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그 밖의 사항

- 법률의 본칙에 해당하는 주요한 사항은 아니나, 법률 구성상 필요하여 보칙 또는 벌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음.
- (비밀엄수 의무) 속기업무는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결정, 기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거나 해당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속기사에 대해서도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8조), 이를 위반¹⁷⁾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자단체인 특수법인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속기사회가 아닌 자의 속기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안 제9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참여 민간인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 수수 등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8조(비밀 엄수)

속기사 또는 속기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속기사회가 아닌 자는 속기사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속기사자격시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과태료)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속기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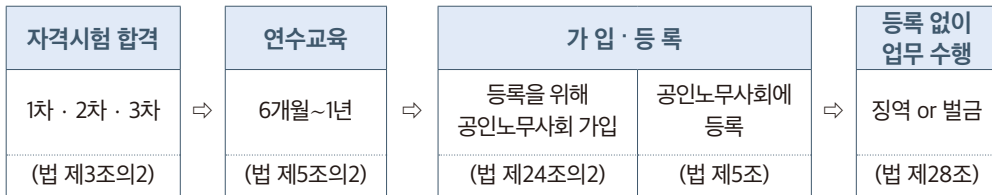
17)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8. 추가 고려사항

가. 속기사의 등록

- 자격등록 제도는 특정의 업무 또는 행위를 할 때 시험합격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이 해당 자격자임을 확인하여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인 자격자로 인정하는 제도임.
- 이러한 자격제도는 시험합격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이 바로 해당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 공증하는 경우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행정청에 신고하여 자격등록을 하게 하는 제도(협의의 자격등록 제도)가 있음.
- 한편, 자격 등록기관을 행정기관이 아닌 해당 자격자로 조직된 협회 등의 단체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자격을 행정관청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것임.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 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의 연수교육을 받은 후, ㉢ 공인노무사회에 가입과 등록을 한 사람만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 공인노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임.

공인노무사 업무 수행 절차



- (속기사) 제정안에 따라 속기사회가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이 되었으나, 속기사들이 속기사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속기사들의 단결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강력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향후 추진방향) 속기협회의 결속력을 높여 속기사들의 업무능력 및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속기사회에 위탁)에 등록¹⁸⁾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은 속기사는

18) 행정관청에 등록이 아닌, 공인중개사와 같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공인중개사법」 제9조).

속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속기사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기존 속기사는 등록을 의제한 후 1년 이내에 정식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제0조(속기사의 등록 등)

- ① 속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속기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속기사의 등록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벌칙)

속기사로서 제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기사 업무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0조(속기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속기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고려사항) 참고로,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는 「공인회계사법」·「공인중개사법」·「행정사법」 등 자격증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으나,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함. 이 바람직하며,¹⁹⁾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독점적 자격제도를 두는 경우 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나. 속기사 자격시험 등의 위탁

□ 속기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 속기사 자격시험 관리, ㉡ 속기사 등록 등 속기관련 업무를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음.

19) 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헌재, 1995.06.29. 90헌바43).

- (속기사 자격시험 관리) 현재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²⁰⁾에 위탁하고, 응급구조사시험의 관리업무는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²¹⁾에 위탁하고 있듯이, 장기적으로 속기사 자격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닌 속기사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속기사 등록) 자격시험을 유지하는 다수의 법률에서 자격시험 등록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해당 자격자 협회에 등록하거나 위탁하고 있으므로, 속기사회가 속기사의 등록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격 등록 관련 규정

구분		㉠유형(공인노무사)	㉡유형(공인회계사)	㉢유형(관세)
등록	행정기관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제7조)	관세청장 (「관세사법」 제7조)
	특수법인	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제5조)	-	-
위탁	법률	-	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 제52조)	-
	시행령	-	-	관세사회 (「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제0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속기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속기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속기사의 등록

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IV. 맺음말

1. 속기사법의 통과 절차 및 시기

-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측에서 법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전체 속기사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당사자들의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왜 속기사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 보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제 법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타당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 ㉠ 누가 발의할 것인가, ㉡ 언제 발의할 것인가, ㉢ 어느 시점에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발의 의원) 법안은 누가 발의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중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명망 있는 의원 또는 업무추진력이 있는 의원으로 추진 가능
- (발의 시기) 법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에서 논의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국회 전에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정감사 시 「속기사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질의 또는 의제화하는 방안
 - 공청회(상임위 또는 소위원회) 개최 시 적극적 의견 제시 또는 관련자로 참석하는 방안
- (통과 시기) 제21대 국회가 2024년 5월 만료되므로, 2024년 2월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을 해 나갈 필요 있음.
 - 2023년 정기회 기간 중에 최소한 1~2번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2024년 2월 임시회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적으로 4월 임시회에 통과를 목표로 업무 추진
- (추가 고려사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상실하는 집단에 대한 설득과 법안 반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가 아닌 속기사회는 이 법에 따른 속기사회가 될 수 없으므로 유사 속기사회는 기득권을 상실할 우려가 큼.

2. 속기사법의 제정 효과

- 대한속기사회가 법정단체로서 100년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대한속기사회’를 중심으로 속기인들의 단합과 전문성을 제고함.
- 속기사 고용시장 확대 등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경력단절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국회 회의록 등 국가 중요기록물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기록문화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 세계 속에 ‘K-한글’ 전파와 확산 기틀



속기의 공신력 강화 위한 특수법인화 필요

신승근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법률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하고 국회에서 25년 가까이 모임을 했었는데 변치 않고 의리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강하십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마치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를 굳이 오라고 하신 것은 이 법률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정법률안, 제정법률안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 “누가 발의하느냐?” 그것이 핵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 내년 5월 30일까지 21대 국회고, 5월 31일부터 22대 국회인데 꼭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겠다고 하신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굉장히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년 5월 30일 자동폐기가 되고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추진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올해 정기국회에 논의할 법안은 법률안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하셔서 내년 5월 30일까지 끝나치고 그분이 22대 국회에 당선되셔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오시면 참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어차피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신 의원님을 통해서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을 즉 검토해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기사협회에 구속력, 강제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은 법률안의 내용이 국가정책이나 공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일본 관동변호사연합회에서 법원속기관 양성 재개를 요구하는 이사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에서 법원이 속기관을 양성하지 않고 외부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속기사들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이사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심문 및 진술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속기가 불가결하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적절한 재판절차를 보장받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재판절차에서 심문, 증언 녹취를 법원속기관이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래서 재판절차의 신속 공정, 적절한 심사를 도모하는 것이 헌법, 법률 취지에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관동변호사연합회 이사장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현역 속기관이 후진 속기관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현역 속기관이 계속해서 줄어들면 앞으로 후진 속기관을 양성하는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다.” 후진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변호사협회 이사장의 말입니다. 2021년에 발표한 성명인데 결국 AI 등을 다 고려해서 속기의 공신력 강화를 일본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속기사법 통과는 매우 타당하고, 속기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 방금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재판과정에서 속기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 공익이 보장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속기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사 - 전문직으로 가는 길

홍기표

1. 속기사 - 기능직인가, 전문직인가?

속기사란 직업은 기능직인가, 전문직인가? 물론 대부분의 속기인들은 자신이 전문직 속기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종사해 왔고, 또 종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기사가 기능직이 아니고 전문직이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이들을 찾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속기계의 솔직한 현실이다. 그건 한마디로 속기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많은 속기인들이 속기 업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전문가란 어떠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가?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속기사는 속기록 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속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어떤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야 전문직 속기사가 할 수 있겠는가? 다음 인용문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

“유능한 속기사란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

— 『速記概觀』, 국회사무처(1969)

위 인용문에서 ‘유능한 속기사’를 필자는 ‘전문직 속기사’로 바꾸어 읽고 싶다. 전문직 속기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3대 능력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고 — 청취(聽取) 능력이다. 여기서 우리는 청취 능력을 청력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 청취 능력은 청력이 정상이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속기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기록하더라도 이를 능히 속기록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자라야 한다.

둘째, 그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 — 언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운필(運筆) 능력(즉 속기술)이다. 우리 사회 일반인들은 이 운필 능력만을 속기의 전부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속기사를 간단히 기능인으로 치부한다.

셋째,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 수문(修文) 능력이다. 속기록의 작성은 음성언어를 단순히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음성언어를 문자언어화하는 작업이다. 그 문자언어에는 음성언어에 담긴 정보와 내용, 그리고 그 생명력이 살아 있어야 한다. 살아 있지 않으면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수문이다. 그 수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언어 감각이 탁월해야 하며, 우리말 문법과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우리말 어문규정에 정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속기의 대상은 음성언어다. 따라서 속기록을 제대로 작성해 내려면 청취 능력, 운필 능력, 그리고 수문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는 결코 전문직 속기사일 수가 없다. 특히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야말로 속기사가 단순한 기능직이 아닌, 전문직이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속기사 자격시험 제도는 운필 능력 한 가지만을 테스트하여 속기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속기사’ 자격증이 아니다. ‘속기술’ 인증서일 뿐이다. 즉 기능인으로서의 자격증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런 속기사들은 어떠한 속기록을 만들어 내게 될까? 먼저 청취 능력부터 살펴보자.

- ① 특히 유럽 재정 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②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만 TU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 ③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 근거한 혁명이고, 이렇게 되면 흔히 우리가 과거에 쓰던 말대로 성역화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위 3개의 예문에는 오청의 기록들이 하나씩 숨어 있다. 읽으면서 바로 그 오청을 인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예문 ①에서 ‘위험 요인’은 ‘위협 요인’의 오청이요, ②에서 ‘TU’는 ‘TEU’의 오청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상식 부족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음운현상에 둔감한 언어 감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③에서 ‘성역화’는 ‘생력화(省力化)’의 오류다. 발인자는 ‘생력화’를 ‘성력화’라고 발음했다. 속기사는 이를 ‘성역화’로 청취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속기사는 ‘바담풍’ 발언도 ‘바람풍’으로 새겨듣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바담풍’을 ‘바담뽕’으로 오청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수문에 대해서는 실무 속기사들 간에도 각인각색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문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교육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속기사를 작성하면서 각자 자기 나름의 수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발언상의 모든 오류는 바르게 고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문으로 인해 속기록에는 때로 미처 생각지 못한 엉뚱한 오류를 불러올 때가 있다.

-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목 부위에 빨랫줄을 네 가닥으로 엮어서 고리를 만들어 목을 맨 색흔 외에 다른 상처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여러 증거로 보아 자살의사가 확실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예문에서 ‘자살의사’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 ‘자살하려는 의사(意思)’란 뜻일까? 그러나 본래 발언은 그게 아니었다. ‘자살에 의한 의사(縊死)’였다. 어휘력의 한계로 자신이 아는 ‘의사(意思)’란 단어에 맞추어 바꾸어 기록한 것이다.

- ⑤ 만약 강원도에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도내 다른 시군에 지방재정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 ⑤ -(전략)- 도내 다른 시군의 지방재정을 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⑤는 속기록 원문이고, ⇒ ⑤는 본래의 발언을 그대로 문자화해 놓은 것이다. 본래의 발언을 이렇게 바꾸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 언중들은 관형격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할 때가 많다. 위 발언에서도 그랬다. ‘다른 시군에 지방재정을’이라고 발음한 것이다. 속기사는 여기에서 ‘에’를 관형격 조사 ‘의’로 새겨듣지 못하고 처소격 조사 ‘에’로 청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오청을 발언상의 오류로 판단, 자신의 오청에 맞추어 고쳐 기록한 것이다.

이 예문들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속기사에게 청취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속기사 자신의 오청을 발언상의 오류로 인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이를 고쳐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은 별개의 능력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하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직 속기사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속기술 이전에 무엇보다도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키워 나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선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취 능력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풍부한 어휘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지식 또한 풍부한 법이다. 또 그런 사람들은 발언의 맥락을 짚어 낼 수 있는 이해력 또한 높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리함에도 속기사 자격증 취득 후 아무런 연수 과정도 없이 막바로 속기사무소를 개설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심지어는 속기술 3급 자격증만 가지고도 속기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병병해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2. 받아쓰기와 정리의 차이

그렇다면 속기사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어떤 원리하에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을까? 여기서 ‘천국’이라 함은 미국에서는 속기사라는 직업이 1만 불(1억 원) 이상의 연수입(年收入)을 올리는 직종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만큼 법률시장이 넓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하원 속기사 10년이면 하원 의장과 연봉이 맞먹는다는 얘기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식 속기법식의 창안자이신 강준원 선생님께서도 직접 들은 기억이 있다. 사회적으로 속기사라는 직업이 그만큼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대통령이 쓰고 말한 대로 정확하게 신는 것이다. 몇 년 후 누군가가 연설문을 찾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확성이다.”

마이클 설리번(미국 대통령 문서록 편집장),
‘미국에도 史官 있다(문명호 특파원)’, 『新東亞』(1997. 11.)

“속기사란 잡다한 음성의 고도의 식별자(discriminator)이며, 또한 결정자(concluder)라야 한다. 발언자가 무엇인가 확실히 발음하지 않거나, 또는 발음을 빼먹는 경우에도 속기사는 곧 그 사실을 식별, 분석하고 결정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엮어 낼 수 있는 두뇌의 소지자라야 한다.”

그랜트 페리(Grant Perry) (전직 미 의회 상원 속기사)
『速記總攬 제1집』(1972. 대한속기협회)

위 두 인용문은 우리가 속기록을 어떠한 원리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속기록은 말한 대로 기록이라는 것이다. 말한 대로 기록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속기사의 청취 능력이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 ① 이 사람들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대로 저녁시간때나 아침 출근시간때에 일찍 나와서 학교 주변을 배회하도록 이렇게 활동을 시키십니까, 그들의 활동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 ② 당초에는 저반시설처럼 물막이용이었는데 저질로 제방 독처럼 양 안의 압력을 견뎌 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압력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문 ①에서 ‘저녁시간때나 출근시간때’는 ‘저녁 시간대(時間帶)나 출근 시간대’의 오칭이요, ②에서 ‘저반시설’은 ‘접안시설(接岸施設)’의 오칭이다.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발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이 아닌 ‘음성’을 그대로 기록해 놓게 된다. 속기사로서 자신의 청취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독서의 생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웅변해주는 예문들이라 하겠다.

그것뿐이 아니다. 속기사는 음성언어에 담긴 의미(뜻)를 문자언어로 정확히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음성 하나하나를 문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언어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 방법은 구두점(문장부호)을 바르게 챙기고, 문법을 바르게 챙기고,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기록 작성 시 모든 속기인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수문(修文) 작업이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된 말이지만, 이는 속기인들이 탄탄한 국어 실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함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 그리고 발언자가 빠뜨린 말이나 불분명한 발음까지도 유추, 분석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엮어 낼 수 있을 만큼 어휘력이 풍부한 실력자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속기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말한 대로 받아쓰기한 것과, 그 받아쓰기에 수문을 가했을 때 그 기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 ① 최근에 발표된 IMD 국제경영개발연구원과 WEF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① 최근에 발표된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와 WEF(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②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이론적 도구로 루돌프 스펜트의 통합이론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대정부질문 뒤편에 논문을 첨부했습니다. 특히 3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② -(전략)- 특히 3~6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③ 업무 추진 현황 6페이지를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와 연찬회 개최를 4개 지역 관호 하고서 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지역에 2회씩 매회 백여명 참석 속에 개최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③ 업무 추진 현황 6페이지를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와 연찬회 개최를 4개 지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에 2회씩 매회 100여 명 참석 속에 개최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 3개의 예문은 음성언어를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을 문장부호를 바르게 챙겨 다시 기록한 것이다. 결과는 가독성(可讀性)이 확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장부호의 일차적인 기능일 뿐이다.

④ 이런 추가 조치 수용이 바로 미 2사단 재배치의 신중한 고려 및 추진, 한국 경제의 신인도 보증과 맞물려서 조인된 문구 조항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 ④ 이런 추가 조치 수용이 바로 미 2사단 재배치의 신중한 고려 및 추진, 한국 경제의 신인도 보증과 맞물려서 조인(join)된 문구 조항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⑤ 왜 이런 것을 법을 어깁니까? 회사의 이익도 없는데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증인출석 요구도 받지 않고 회사의 이미지 손상도 없을 텐데……

⇒ ⑤ 왜 이런 것을 법을 어깁니까, 회사의 이익도 없는데?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증인 출석 요구도 받지 않고 회사의 이미지 손상도 없을 텐데.

위 두 예문은 속기록에서 문장부호로 인해 음성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살아나는지를 확연히 보여 준다. 문장부호가 잘못되면 발언 내용을 완전히 왜곡, 변질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⑥ 4대 강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면 가뭄, 홍수 등, 수질 개선, 여가 공간 창출 등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⑥ -(전략)- 마무리가 되면 가뭄·홍수 대응, 수질 개선, 여가 공간 창출 등에서 -(후략)-

⑦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랑인 개념하고 지금 노숙자 개념에 부랑인 개념과 홈리스와 구분이 안되어서 노숙자 문제가 말썽입니다.

⇒ ⑦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숙자 개념에 부랑인 개념과 홈리스와 구분이 안 되어서 노숙자 문제가 말썽입니다.

위 두 예문은 속기사에게 문법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 준다.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나열하는 어휘들 중간에는 결코 올 수 없는 단어다. 문법 실력이 중학생 정도만 되었어도 자신의 오청을 인지했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다. 예문 ⑦의 ‘부랑인 개념하고’는 는 발언자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보태야 할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말을 취소하고 ‘지금 노숙자 개념에 부랑인 개념과~’란 말로 발언을 새로이 이어가는 것이다. 물론 발언자가 그 말을 취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기사는 그러한 정황을 구별할 만한 청취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그리고 취소한 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⑧ 차장께서는 절대로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미국산 대구머리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 ⑧ 차장께서는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절대로 미국산 대구머리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문 ⑧은 음성언어 그대로의 기록이다. 즉, 받아쓰기로 끝낸 기록이다. ⇒⑧은 ‘절대로’란 부사를 문자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바르게 챙겨 준 것이다. 발언의 의미가 한결 명료해지게 되었다.

⑨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러는데 농진청에서 거의 경영, 기술,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⑨- i.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러는데, 농진청에서 거의 경영 ·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⑨- ii.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러는데, 농진청에서 경영 ·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문 ⑨는 속기록 원문이다. ⇒ ⑨- i 은 음성언어를 발언 그대로 기록하면서 문장부호를 챙겨 준 것이다. ⇒ ⑨- ii 는 그에 더하여 문법까지 챙겨 준 기록이다.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장부호와 문법을 바르게 챙겨 줄 때 발언 내용이 얼마나 명료해지고 가독성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⑩ 지금 부품·소재팀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이 주이지만, 그러나 기술 개발했던 것을 특히 해외에 판로하고 하는 것도 역할을 합니다.

위 예문에서 ‘판로하고’란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발언자는 어떤 단어를 빠뜨리고 발언했다. 속기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성언어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독자들은 이런 기록을 볼 때 무슨 말인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발언의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판로를 개척하고’에서 ‘개척’을 빠뜨리고 발언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낱 기능에 불과한 운필 능력만으로는 받아쓰기 수준의 속기록도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움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받아쓰기 수준으로는 속기록의 생명인 정확성을 살려내지 못한다. 청취 능력이 결여된 채 행해지는 수문 작업은 속기록을 왜곡, 변질시키기도 한다.

청취 능력 향상을 위해서 속기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폭넓은 독서’의 생활화이다. 그리고 수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비롯하여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어문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속기사 양성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속기술 하나만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속기협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속기술을 습득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그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소양 교육 사업을 적극 펼쳐야 하겠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만이 전문직 속기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대 상황에 쫓겨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속기사법의 제정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들을 함께 담아내야 할 것이다.

3. 속기사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대책을 찾아보려면 속기시장(速記市場)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속기계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¹⁾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의 속기계(速記界)는 크게 두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각 주마다 2년제 주립 속기학교를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속기사의 양성을 주(州) 차원에서

1) 아래 내용들은 필자가 20, 30년 전에 자료를 통해 읽었던 내용들이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는 속기술뿐만 아니라 속기사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함께 이수하게 된다. 둘째는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도 직업 속기사로서 활동하려면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미(全美) 속기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그 교육은 사회 분야별 다양한 과정(課程)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각 과정은 특성에 따라 그 교육 기간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룰테면 원자력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 속기를 하려면 속기사 1급 자격증과 함께 전미속기사협회에서 취득한 원자력 관련 기본 교육 과정 이수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단지 속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속기사로서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혼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생겨나고 있듯이 미국은 속기사도 그만큼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는 사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속기사법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속기계가 발전해 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1. **속기술 인증 시험:** 현행의 속기사 자격시험 방식대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속기산업의 현상(現狀) 유지를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2. **속기사 연수 제도의 도입:** 속기술 인증서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양 교육 과정. 이는 대한속기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강사료 등 각종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 대안으로 국회의정연수원 내에 1년 기간의 속기사 연수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필요성을 행정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1) 속기사 연수 과정(1년) 개설(국회의정연수원 내)
 - ① 속기술 1급 취득 후 연수 과정 이수 의무화
 - ② 개설 과목: 국어(문법 중심), 영어, 한자, 법학, 경제학, 사회학, 국사(현대사 중심), 일반상식 등
 - ③ 이수자에게 국가 공인 1급 속기사 자격증 발급
 - ④ 공인 1급 속기사에 한해 속기사무소 개업 인가
- (2) 속기사 재교육 과정 설치(대한속기협회 내)
 - ① 기존 속기사 대상의 단기 교육 과정 개설, 이수증 발급
(각종 문화예술, 과학기술, 생태환경 등 사회 분야별 기본지식 교육)
 - ② 5년 주기의 재교육 과정(3개월) 이수 의무화
 - ③ 각종 회의나 세미나 속기록 작성 시 관련 수요처에 재교육 이수증 제시 의무화

4. 맺는말

어느 분야든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 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할 때 그 기본 소양의 바탕 위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가면서 그 맡은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운필 능력, 즉 속기술은 속기사로서의 절대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문직 속기사라면 일차적으로 청취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속기사는 무엇보다도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통해 자신을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속기를 하더라도 사전 지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속기사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국어 실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수문은 탄탄한 국어 지식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능숙한 속기술 위에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고품질의 속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직 속기사가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속기사법 제정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속기문화가 제자리를 잡아 가고, 우리 속기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챗gpt의 활용

이순영

ChatGPT Sprints to One Million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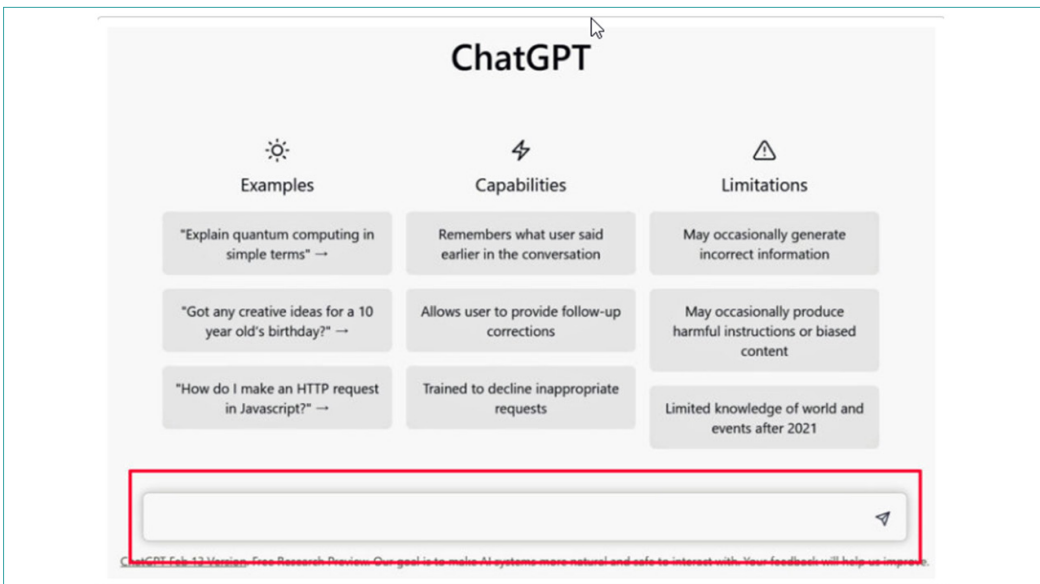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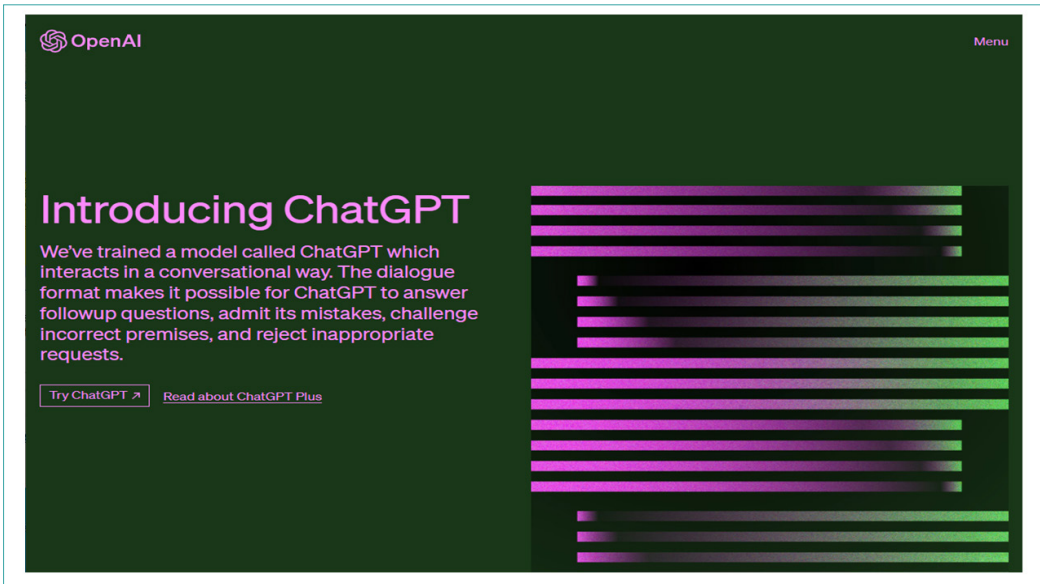
Time it took for selected online services to reach one million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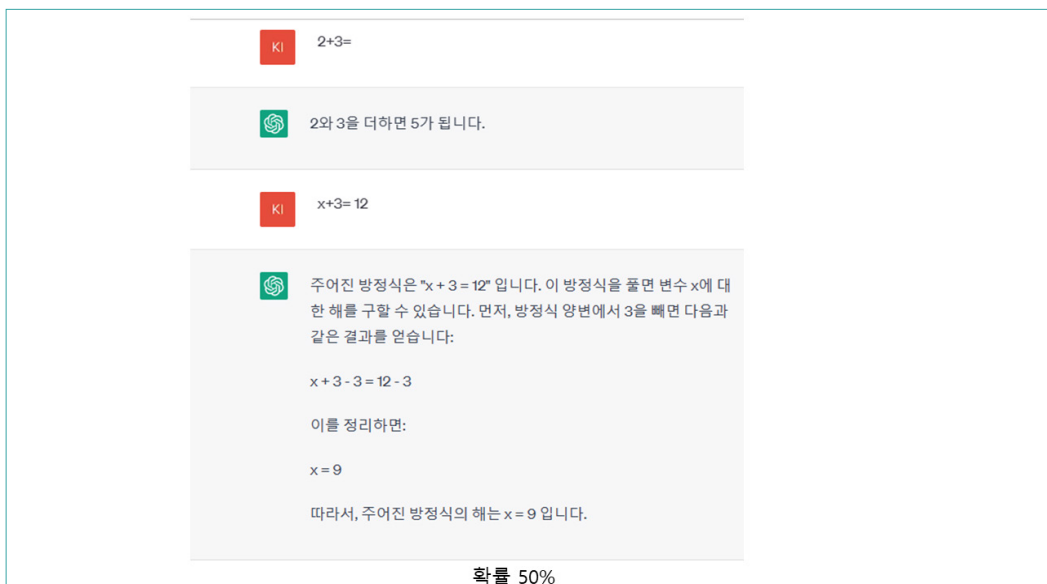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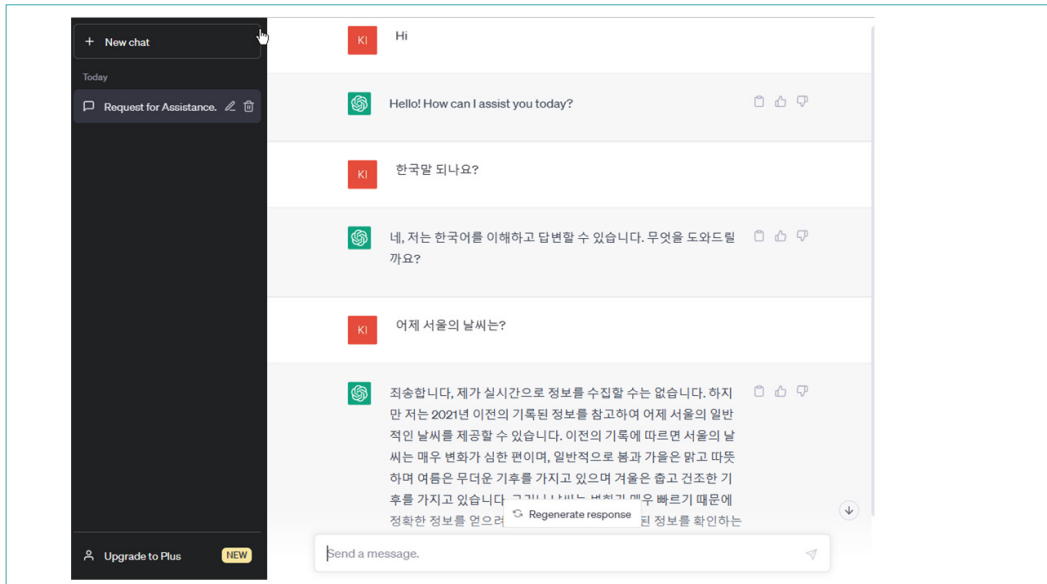


* one million backers ** one million nights booked *** one million downloads
Source: Company announcements via Business Insider/LinkedIn



statista





KI $x+y=7$ $x^2y=10$

2/2 주어진 방정식은 " $x+y=7$ "과 " $x^2y=10$ "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변수 x 와 y 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방정식에서 y 를 구합니다.

$$y = 10 / x$$

그리고 첫 번째 방정식에 y 대신 위에서 구한 y 를 대입합니다.

$$x + (10 / x) = 7$$

이제 이 방정식을 x 에 대해 풀어보면,

$$x^2 - 7x + 10 = 0$$

$$(x-5)(x-2) = 0$$

따라서, x 는 5 또는 2가 됩니다.

따라서, $x+y=7$ 와 $x^2y=10$ 의 모든 조건을 만족

Was this response better or worse?

Send a message.

BI 꽃을 소재로 짧은 시 한 편 지어줘


꽃이 피어나면
세상은 아름답다
하지만 시들면
슬퍼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 아름다움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시들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7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여행 스케줄을 간략하게 계획해봤습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명들을 방문하는 스케줄이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7월 20일: 도착 및 적응**
 - 인천에서 출발, 로스앤젤레스 (LAX) 도착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7월 21일: LA 시내 탐방**
 - 오전: 그리피스 관측소 방문
 - 오후: LA 카운티 미술관 (LACMA) 방문
 - 저녁: The Grove와 Farmer's Market에서 식사 및 쇼핑
- **7월 22일: 해변 및 쇼핑**
 - 오전: 샌타모니카 피어 및 해변 방문
 - 오후: Third Street Promenade에서 쇼핑
 - 저녁: Venice Beach 보드워크 산책
- **7월 23일: Hollywood & Universal Studios**
 - 오전: Hollywood Walk of Fame, TCL Chinese Theatre, Dolby Theatre 방문
 - 오후-저녁: Universal Studios 방문
- **7월 24일: 과학 & 문화**
 - 오전: California Science Center 방문
 - 오후: The Broad 미술관 방문
 - 저녁: LA 라이브 지역에서 식사 및 탐방
- **7월 25일: 자유 시간**
 - 개인 취향에 따라 추가로 방문하고 싶은 곳이나 재방문하고 싶은 곳을 선택
- **7월 26일: 출발**
 - 호텔 체크아웃
 - 인천으로 출발


KI 달콤하다는 측면에서의 차이를 말해봐?

 와인과 여인 사이에서 "달콤하다"라는 표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1. 와인의 달콤함: 와인은 다양한 당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와인은 당도가 높아 달콤한 맛을 가지며, 이는 포도의 성장 단계, 포도 품종, 발효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콤한 와인은 주로 디저트 와인으로 분류되며, 맛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각종 당이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2. 여인의 달콤함: 여인의 "달콤함"은 말 그대로 외모나 성격 등에서 나타나는 매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달콤함은 그녀의 유머 감각, 친절한 태도, 사랑스러운 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콤함은 와인과 여인에서 모두 주관적인 경험과 감성에 의해 평가되는 개념입니다. 와인의 달콤함은 맛과 향을 통해 느낄 수 있고, 여인의 달콤함은 그녀와의 상호작용과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 경험될 수 있습니다.


K 김소월의 진달래꽃 써봐

 저기 저 진달래꽃이 피어나네요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하나 없이 맑고 푸르름이 가득해
아름다운 저 꽃들이 미소 짓고 있네요


진달래꽃아 너의 향기가 깊이 스며들어와
내 가슴을 향해 노래하고 있어요
봄의 기운과 사랑의 감동이 흐르듯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 미소에 빠져들고 있네요


저기 저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네요
사랑의 꽃들이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향기로운 그 모습은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고 있네요

진달래꽃아 너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피어나네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이 작은 시로
영원히 꽃을 피우며 향기를 품고 있을게요
진달래야, 너는 나의 사랑과 소망의 상징이니까요

 Regenerate response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 된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한글)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중,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관료들이 문서 작성을 돕기 위해 임명한 기획관 중 한 명인 최환(崔煥)에게 작성 중단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에 분노하여 최환을 부르고, 맥북프로를 함께 들고 그를 방으로 불러들이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초고 작성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의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열정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KI** 아래의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만들어 줘기본정보; 연령, 성별, 거주지, 출신지 등
 직업; 업종, 직급, 근무지 등
 학력; 최종학력, 대학·학부 등
 수입/금융관계; 연수입, 저축, 보험, 신용카드 등
 인간관계; 가족구성, 배우자/연인/자녀여부, 친구수 등
 성격; 가치관, 물질관심도/사고방식, 인생관, 콤플렉스, 돈쓰는법 등
 취미/흥미; 기호품, 여가보내는법, 인도어/아웃도어파 등
 생활패턴; 기상/취침시간, 출퇴근/근무시간, 습관, 행복을 느낄 때 등
 생활감; 고민거리, 곤란한 일, 고생하고 있는 일 등
 목표/Goal; 인생/일에서의 목표/골/과제, 도전하고 싶은 일 등
 인터넷; 이용상황/시간, 자주 이용하는 SNS/앱/웹사이트 등
 소유 디바이스; 스마트폰 기종, PC 유무/기종 등
 정보원의 종류; 신문, 잡지, TV, Web 등
 쇼핑; 정기구입 상품/서비스, 좋아하는 브랜드/패션, 쇼핑장소



아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테이블 예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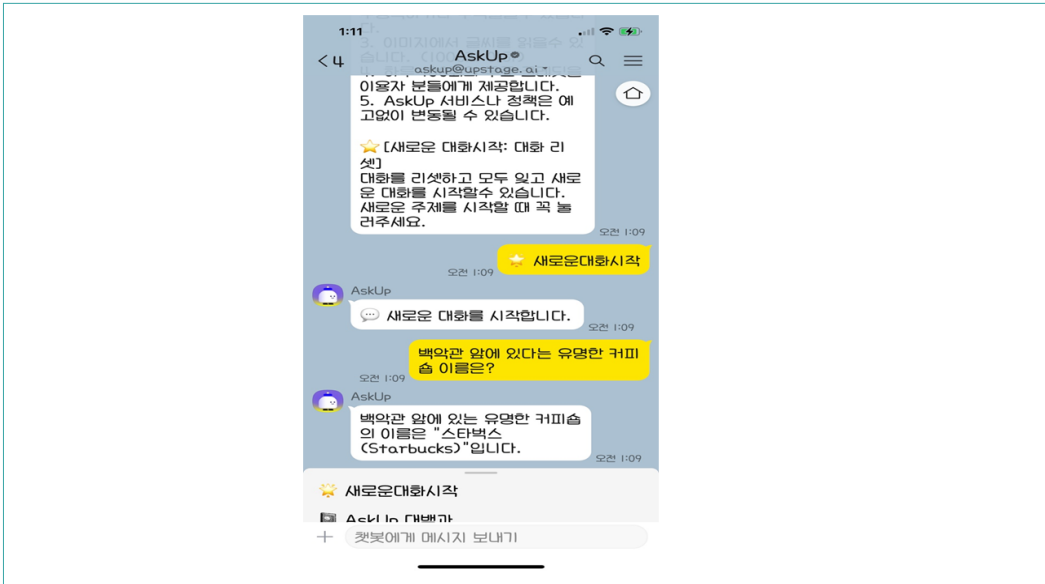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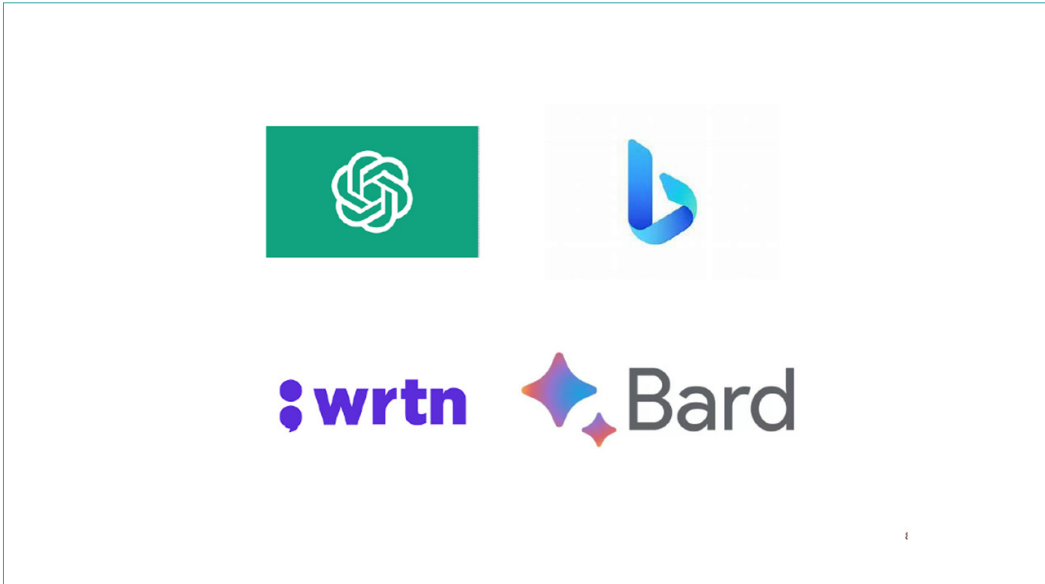
기본정보	
연령	
성별	
거주지	
출신지	

직업	
업종	
직급	
근무지	

학력	
최종학력	
대학/학부	

수입/금융관계	
연수입	
저축	
보험	

Regenerate response





20대 화장품을 좋아하는 비건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개발 견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20개로 개인정보에 대한 설문, 평상시 화장품 고를 때 고려사항, 지불 가능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단답식과 객관식을 섞어서 질문해주세요. 말투는 친근하지만 사무적으로

Sure! Here are some sample questions for your survey targeting vegan women in their 20s who like cosmetics, with a mix of personal information, considerations when choosing cosmetics, and willingness to pay.

1. What is your age?
2. Are you a vegan?
3. How often do you purchase cosmetics?
4. What factors do you consider when choosing cosmetics? (e.g. ingredients, brand, price)
5. How much are you willing to spend on a single cosmetic product?
6. Do you prefer natural or synthetic ingredients in your cosmetics?
7. How important is the brand when choosing cosmetics?
8. Do you prefer to purchase cosmetics online or in-store?
9. How often do you try new cosmetic brands?
10. Do you read reviews before purchasing cosmetics?
11. How important is the packaging when choosing cosmetics?
12. Do you prefer multi-functional or single-purpose cosmetic products?
13. How important is the scent of a cosmetic product to you?
14. Do you have any allergies or sensitivities to certain ingredients in cosmetics?
15. How important is the sustainability of a cosmetic brand to you?
16. Do you prefer matte or glossy finishes in your cosmetic products?
17. How often do you wear makeup?
18. Do you prefer bold or natural makeup looks?
19. How important is the ease of application when choosing cosmetics?
20. Would you be willing to pay more for a cosmetic product if it was vegan and cruelty-free?

These questions are written in a friendly yet professional tone and include both open-ended and multiple-choice questions.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with?

Sure! Here are the revised questions in multiple-choice format:

1. What is your age?
 - 20-22
 - 23-25
 - 26-28
 - 29-30
2. Are you a vegan?
 - Yes - No
3. How often do you purchase cosmetics?
 - Weekly
 - Monthly
 - Every few months
 - Once or twice a year
4. What factors do you consider when choosing cosmetics? (Select all that apply)
 - Ingredients - Brand - Price - Packaging - Sustainability



- 아래 옵션에 따라 "여드름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피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하세요.
- 콘텐츠 목표: 블로그
- 길이: 약 500단어
- 형식: 마크다운
- 제목 포함
- 자세한 설명 포함
- 대상: 20대 여성
- 작문 스타일: 전문가
- 일부 의료 정보 포함

여드름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피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

서론

여드름은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여드름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킨케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드름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여드름을 피하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에 대해 [Regenerate response](#)

피해야 할 것

1. 자극성 화장품 사용

여드름 피부에는 자극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 인공 향료, 파라벤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극성 화장품을 피해야 합니다.

2. 지나친 세정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피부를 지나치게 세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정할 경우 피부의 유분을 제거하게 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지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정제를 사용하고 너무 자주 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끈적임을 유발하는 제품 사용

여드름 피부는 이미

"Tell me detailed information about LEE, SOON SIN in chart format"
 -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차트 포맷으로 정보를 알려줘.

I assume you are referring to Admiral Yi Sun-sin, a Korean naval commander during the Joseon Dynasty. Here's a chart summarizing some key information about him:

Information	Details
Full Name	Yi Sun-sin (이순신)
Birthdate and Birthplace	April 28, 1545 in Geoje, Gyeongsang Province, Korea
Occupation	Naval Commander
Notable Achievements	- Won all 23 naval battles he fought - Invented the "Geobukseon" turtle ship - Is considered a national hero in Korea
Cause of Death	Killed by a stray bullet in the Battle of Noryang
Date of Death	December 16, 1598
Legacy	- Has inspired numerous books, movies, and TV shows - His leadership and strategic tactics are studied by military scholars around the world

ChatGPT 차트 명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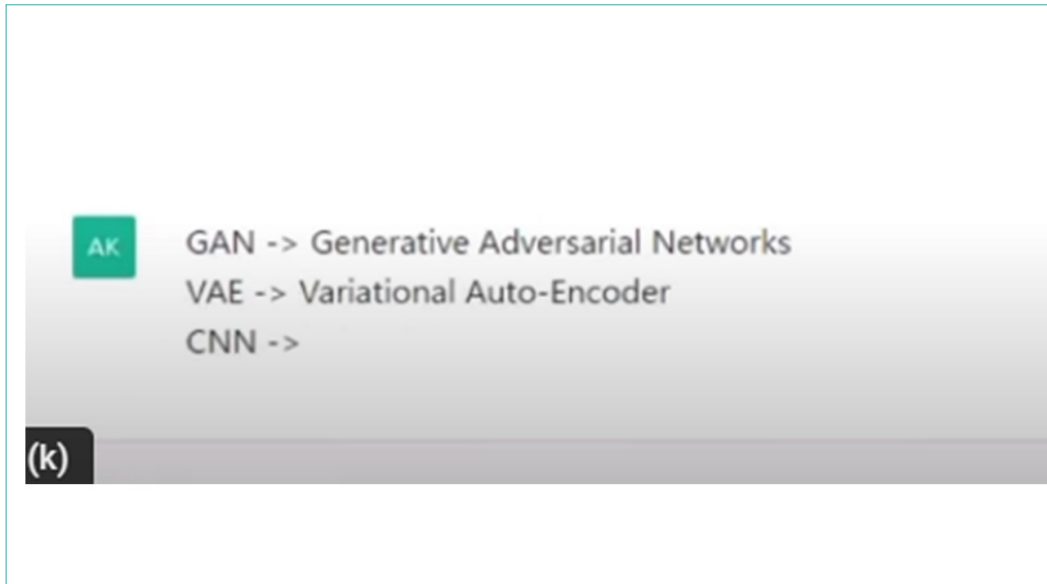
- '~ in chart format / ~ text table format / ~ show it into chart format'
'~ 차트로 보여줘 / ~ 차트 포맷으로 알려줘'
- "사과 영양정보를 차트로 보여줘"
- "삼성과 LG의 매출 차이를 차트포맷으로 알려줘"
- "Restaurant kitchen layout drawing specs in chart format"
- 영어 / 한국어 다 잘되지만 영어 프로세싱 속도가 훨씬 빠르긴 합니다.

- 프롬프트의 기본 구조-- 5단계 입니다.
- 첫번째는 역할 부여입니다.
"너는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야"
- 두번째는 사전지식 입력입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4가지 플랫폼들의 각 채널들의 흥망성쇠를 다뤄졌으면 해"
- 세번째는 미션수행입니다.- 톤앤매너와 주체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분석적인, 친근한 분위기를 출력할 것인가?
- 네번째는 원하는 값이 나올때 까지 수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신기해서 자꾸만 질문을 하고 싶어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ㅎㅎ

Example + Task or Task + Procedure (수순)

아직 ChatGPT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질문을 해보세요!생각지 못한 재미난 답변을
받을지도 모르니깐요~



각 대학의 경우.....

- 사회과학대학
- 의과대학
- 철학과
- 공과대학
- 음악대학

AI and society Jan 22, 2023

ChatGPT has left-wing bias - study



Content

Summary

Which politics does ChatGPT stand for? A study shows that AI is on the left side of the political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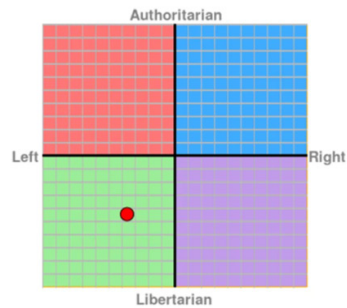
r/ChatGPT • 5 mo. ago
by Firered_Productions

Join ...

CHATGPT political compass result

Economic Left/Right: -3.63

Social Libertarian/Authoritarian: -4.46



What is ChatGPT?

-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 A Kind of LLM (Large-Language Model)
- Google Bard
- Naver Hyper Clova, SK A.(에이닷), Kakao KoGPT
- Luda, Shimshimi
- Polyglot- 미국 Stability AI가 지원 - sLLM

- Chat GPT는 GPT를 기반으로 대화에 특화시켜 인력을 들여 튜닝한 것입니다.

ChatGPT에는 다양한 기능(상세후술)이 있습니다만,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면은 챗봇(대화형식)이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 출력을 한 번만 꺼내는 경우에는 대화 형식의 장점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단순히 요약하고 싶다면 요약 전용 모델을 준비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역하려면 번역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용자 입력에 대한 ChatGPT 응답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입력을 할 경우에는 대화 형식의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요약된 문장을 사용자가 보고 추가 지시(예: 더 짧게 요약하고 싶다)를 주는 경우입니다.

-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 웹 검색은 할 수 없다
- .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에는 한계가 있다
- 응답 생성에 시간이 걸리다
- 다루는 데이터는 텍스트만
- 특정 데이터로 튜닝할 수 없다
- 2021년 이후의 지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기본 구조

The best thing about AI is its ability to

learn	4.5%
predict	3.5%
make	3.2%
understand	3.1%
do	2.9%

문장단위로, 문단단위로 예측

• chatGPT 단독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chatGPT가 썼다는 **퀀트 파이낸스** 책을 보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볼때에 대학교 1학년이 썼다고 하면 잘쓰는데 3,4학년이 썼다고 하면 잘쓰는건 아닌 그런 수준이다. 다른 예제들을 보아도 고등학생이면 아주 잘 대답한건데 대학생이면 그냥 보통 수준인 경우가 많다.

 <p>KAYAK Search for flights, stays and rental cars. Get recommendations for all the places you can go within your budget.</p>	 <p>Klarna Shopping Search and compare prices from thousands of online shops.</p>	 <p>Milo Family AI Giving parents superpowers to turn the manic to magic, 20 minutes each day. Ask: Hey Milo, what's magic today?</p>
 <p>OpenTable Provides restaurant recommendations, with a direct link to book.</p>	 <p>Shop Search for millions of products from the world's greatest brands.</p>	 <p>Speak Learn how to say anything in another language with Speak, your AI-powered language tutor.</p>
 <p>Wolfram Access computation, math, curated knowledge & real-time data through Wolfram Alpha and Wolfram Language.</p>	 <p>Zapier Interact with over 5,000+ apps like Google Sheets, Trello, Gmail, HubSpot, Salesforce, and more.</p>	



6월 20일에 뉴욕에서 저녁 식사를 할 레스토랑을 추천해줘



Used OpenTable



다음은 2023년 6월 20일 저녁에 뉴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입니다:

1. [Dinner at The Holt Hotel, Steeple Aston](#)
2. [The Ivy Oxford Brasserie, Oxford](#)
3. [Gees, Oxford](#)
4. [Quod Restaurant and Bar, Oxford](#)
5. [The Crown, Woodstock](#)
6. [Parsonage Grill, Oxford](#)
7. [Cecconi's Bicester Village, Bicester](#)
8. [No.1 Ship Street, Oxford](#)
9. [Chesterton Brasserie, Bicester](<https://www.opentable.co.uk/r/chesterton-brasserie-bicester?dateTime=2023>)다음은 2023년 6월 20일 저녁에 뉴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입니다:
10. [Dinner at The Holt Hotel, Steeple Aston](#)



1인당 30불 이하의 레스토랑과 추천 메뉴도 함께 작성해줘





Used OpenTable

다음은 2023년 6월 20일 저녁에 뉴욕에서 1인당 30불 이하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입니다:

1. [Dinner at The Holt Hotel, Steeple Aston](#) - 추천 메뉴: 스테이크와 칩
2. [The Ivy Oxford Brasserie, Oxford](#) - 추천 메뉴: 아이비 버거
3. [Gees, Oxford](#) - 추천 메뉴: 피자
4. [Quod Restaurant and Bar, Oxford](#) - 추천 메뉴: 파스타
5. [The Crown, Woodstock](#) - 추천 메뉴: 피쉬 앤 칩스

이 레스토랑들은 모두 예약 가능하며, 링크를 클릭하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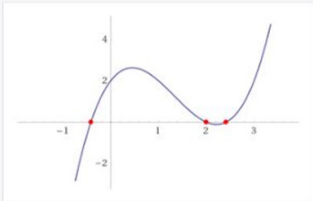
 $x^3 - 4x^2 + 3x + 2 = 0$ 의 답을 알려줘

 Used Wolfram

방정식 $x^3 - 4x^2 + 3x + 2 = 0$ 의 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 = 2$
2. $x = 1 - \sqrt{2}$
3. $x = 1 + \sqrt{2}$

다음은 해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수직선입니다:



- Chat GPT에는 아래와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처럼 말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 학습 데이터가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1.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포르노만 있는 쓰레기의 바다라고 욕하던 사람
- 2. 쓰레기(?)를 잘 소비하던 사람
- 3. 그중에 정보를 잘 취합해서 활용한 사람
- 4. 쓰레기를 잘 판매한 사람

Nikkei X-TECH_2023.5.31


45

NRI, 챗GPT 이용 동향 발표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5월 26일, 일본의 챗GPT(Chat GPT) 이용 동향을 공개했다. 챗GPT 이용률은 10~30대 남성이 20%를 넘었고, 30대 남성이 2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직업별 이용률에서는 학생이 21.6%로 가장 높았고 1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15~16일, 간토(関東) 지방 거주 15~69세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식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채택했다. 유효 응답 수는 3,204명. 전체의 61.3%가 챗GPT를 인지했고, 12.1%가 실제 이용했다고 답했다. 성별 이용률을 보면 남성이 17.7%, 여성이 6.2%로 큰 차이를 보였다.

향후 이용에 대해서는 챗GPT를 사용해본 사람의 88.7%가 계속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기밀 정보 누설이나 회답 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무 효율화할 수 있다', '사람에게 질문하기 어려운 것도 AI(인공지능)에게 손쉽게 질문할 수 있다', '코드의 제작이 편해졌다' 등, 체험담이 포함된 코멘트도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에서 챗GPT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향후 5년 내
비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7800명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

美 지난달 사유별 감원 규모

단위: 명, 5월 23일 기준



자료: CG&C

The JoongAng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AI가 이미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증거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인사관리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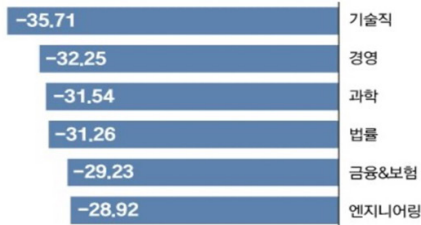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美 화이트칼라 업종 채용 공고 변화

단위: %, 지난해 6월 대비 지난해 11월 채용공고 일자리 비교



자료: ZipRecruiter

The JoongAng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국 백악관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고 시에 나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정보유출 우려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을 제한한 사례

-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 잠정 제한
-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챗GPT 질문 시 1024바이트 이상 입력 금지
- SK하이닉스**
 사내망에서 챗GPT 접근 제한
- 포스코**
 내부 인트라넷 통해서만 챗GPT 접속 허용
- 아마존,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
 대화형 AI 사용 제한
- 일본 소프트뱅크, 후지쓰**
 회사 기밀 대화형 AI에 입력 금지

-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대회(I/O)에서 시씨 샤오 부사장이 이날부터 한국어와 일본어로 인공지능 챗봇 Bard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 구글이 10일(현지시간) '챗GPT 대항마' 격인 생성 인공지능(AI) '바드'(Bard)의 지원 언어에 한국어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한국 이용자들은 한국말로 Bard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드는 또 고급 수학, 추론뿐 아니라 코딩도 할 수 있다고 구글은 밝혔다.
- 오픈AI가 만든 챗GPT와 비교해 구글 바드의 가장 큰 강점은 데이터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학습해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최신 뉴스 등에 관해 물었을 때 틀린 답을 내놓지만, Bard는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훨씬 작다는 얘기도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연 배우 박은빈의 대상 수상 소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 Bard는 박은빈이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사실을 먼저 언급하더니 "박은빈의 수상소감은 진정성 있고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녀의 수상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 "정확하고 유익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있다면 Bard가 더 나은 선택이고, 창의적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있다면 챗GPT가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답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주장할 것 같다는 예상은 깬, 참신한 답변이었다.
-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Bard'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챗GPT 하루 유지비만 9억... 핵융합에 눈독들이는 MS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최근 '헬리온 에너지'로부터 5년 안에 핵융합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했다. 헬리온은 2028년까지 핵융합 전력 생산을 시작하고 1년 내로 최소 5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1MW는 하루 최대 1000개 가정에 공급하는 전력 규모다. 핵융합 발전 관련 최초의 상업 계약이다. 2028년까지 핵융합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헬리온은 MS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강원도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목표로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데이터센터는 4곳으로, 이들의 전력 사용 규모는 360MW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이 쓰는 전력량이 40MW로, 각 춘천 9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경쟁이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제3주제

속기산업의 활성화 방안

유덕자

I. 개요

한국의 속기산업은 부호문자를 사용하는 수필속기법에서 자동번문을 사용하는 컴퓨터속기법이 발표되면서 속기의 활용처가 기존의 국회 지방의회 등 입법분야에서, TV 한글자막방송 교육속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법원 검찰 경찰 사법분야로까지 지평을 넓히고 있음.

II. 속기산업의 활동분야

1. 입법 분야

□ 국회

○ 「국회법」제69조제2항 및 제115조제2항 위원회·본회의 의사 속기

○ 의정기록1·2과로 직제 정원 125명

- 정규직(1차 필기, 2차 실기, 3차 면접)

□ 지방의회

- 「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 회의내용 속기
- 전국 230여 곳(광역의회·기초의회) 약 700여 명
- 정규직(1차 필기, 2차 면접)
- 기간제(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속기사 팀장 승진(서울시, 경기도 등 다수)
-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장으로 이관

2. 행정 분야

□ 대통령실

- 연설, 언론, 수행 시
- 5~6명 내외
- 정규직 및 기간제(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국무총리실

- 국무회의
- 정규직(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규직 및 사안 발생 시 활용
-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 300개 위원회 30일 내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의무
-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 기록, 다만 녹음기록의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3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의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 속기사 채용

-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재직 시 모든 업무보고를 속기록 작성

- 서울 기초단체장 및 지자체장의 속기록 작성 등

3. 사법 분야

□ 법원

-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항 변론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 전국 18개 지방법원, 41개 지원, 100개 시·군법원
- 전문임기제(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속기서기보 정규직(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전문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자중에서 주로 채용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0
 - 5급 이상(한글속기 1급), 6·7급(한글속기 2급 이상), 8·9급(한글속기 2급 이상)
- 기간제 및 정규직(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검찰청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제5항
 -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 속기업무 운용준칙(속기 및 녹취 업무)
- 임기제 공무원(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기간제(속기자격자 우대 형식으로 예산 범위에서 채용)

□ 경찰청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속기
- 해바라기센터 34개소(병원 내에 치료와 조사 원스톱)
- 용역사업으로 진행

□ 교육청

- 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 작성

- 용역입찰(시간당 단가 및 전체금액)
- 속기사무실 및 프리랜서

4. 복지 분야

□ 한글자막방송(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3항 폐쇄자막(Close Caption)
- 「방송법」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7항 폐쇄자막(장애인시청지원)
- 자막방송대상 100여 채널
 - 공중파 방송(KBS MBC SBS EBS 경인방송 지역방송 등)
 - 종편(JTBC MBN TV조선 채널A)
 - 뉴스(YTN 연합뉴스TV)
 - 홈쇼핑(롯데 현대 GS NS 등)
 - 스포츠 채널 등
- 자막방송 수행 업체
 - 정규직 수시 채용
 - 프리랜서 수시 채용
 - 사무실 및 원격 방송 시스템 채용
 - 자막방송 연수를 통한 연수생 투입



인코더(encoder) : 자막방송 속기시스템과 방송국 송출시스템을 연결하는 고리

□ 교육속기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제4항 문자통역(속기)

- 대학교 청각장애학생 입학생의 수업계획에 따른 교육속기 지원
- 학교수업 시 현장에서 속기지원 및 원격 속기지원
- 학교별로 속기사 기간제 채용 및 원격지원 회사에서 채용
- 공공기관에서 연수 시 청각장애 직원이 요청 시 속기 지원

□ 공공기관 현장속기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제2항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문자통역사 투입
-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시에 속기사 투입

5. 특수 분야

□ 녹취록 작성

- 「국가기술자격법」 한글속기 자격증 취득자
- 법원 검찰 경찰 학폭위 등에 녹음파일을 문자화한 녹취록을 속기사가 날인해서 제출
- 법원·검찰청·경찰서 인근에 속기사무실 개업 또는 프리랜서

□ 뉴스 작성 시 활용

- 기자회견, 유튜브, 방송 등에 실시간속기한 속기록을 뉴스제작에 활용
- 기간제 채용, 사무실 및 원격근무

□ 재개발·재건축 회의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 제1항 속기록 등 작성 및 제138조 제7항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을 조합설립부터 청산 시까지 약 10년간
- 단가 협의 중요
- 속기사무실 및 프리랜서

□ 기타

- 종교기관(기독교 불교 등)
- 개인 구술 등

Ⅲ. 속기산업의 활성화

1. 기술 접목을 통한 시장확대

□ 50년대 수필속기 -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

- 길이 모양 방향 위치 등에 따른 부호문자를 이용하여 속기한 후 다시 일반문자화 하려면 속기시간의 12배(국가자격시험)가 소요됨.
- 번문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국회 지방의회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약 30년간 속기시장 확대에 한계

□ 90년대 컴퓨터속기 - 자막방송 교육속기로 확대

- 미국에서는 70년대에 CAT(Computer Aided Transcription System, 자동번문장치)를 개발하여 자막방송 교육속기 법원속기에 활용함
- 국내에서는 94년도에 CAS속기 시리즈 개발(한국스테노) 발표하였고, 이어 컴퓨터속기 개발(소리자바)함.
- 실시간 속기가 가능함에 따라 96년경부터는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에 방송 메인뉴스를 문자중계하거나 대선토론회에서 컴퓨터속기사가 실시간으로 문자중계함.
- 98년도에는 국가시험에 컴퓨터속기 종목이 채택됨에 따라 속기사 인력의 안정적인 배출 기반이 마련됨.
- 속기사 인력과 문자중계를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송국과 정부통신부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99년도 2월 12일에 MBC가 1시간 동안 자막방송 송출에 대한 내용을 생방송으로 하면서 한국속기의 선진화 발전을 마련하였음.

□ 2020년대 음성인식 상황

- 최근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AI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 ETRI에서 음성인식 엔진을 일반 회사에 공급
- 네이버에서 '클로바노트'를 이용한 음성인식 제공
- 다글로 등 수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속기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속기 기술

- 펜과 종이가 있을 때는 수필속기, 컴퓨터가 개발되어서는 컴퓨터속기, 각 시대마다 속기의 한계상황을 극복한 DNA를 살려서 작금의 AI, 음성인식, 각종 프로그램, 장비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속기와 매칭하는 비전 제시가 필요함.

2. 법령(조례) 제정을 통한 시장확대

□ 법령 리스트 분석

-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방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속기와 관련한 문구의 정확한 해석 필요
- 법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속기사법

- 개별법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속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 과정이 필요함.

3. 인권 신장을 통한 시장 확대

□ 법원

- 법원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을 합치면 속기사가 천여 명이 넘는 가장 큰 기관임.
- 종래에는 ‘예·아니오’ 대표되던 진술이 공판중심주의로 바뀌면서 모든 증인신문에서 속기사가 투입되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음.
- 다만 속기록이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문제가 있고, 의원입법으로 속기록 조서화가 추진되었으나 통과가 안 됨.

□ 검찰청

- 피의자의 인권과 자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이 막대한 예산으로 지청마다 설치됨.
- 기왕에 채용된 속기사를 속기조서 작성에 투입되어야 하나 녹취록 작성에 투입되고 있음.
- 검찰청은 기소독점을 통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 방어권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피의자의 조서작성은 검사(수사관)가 질문한 내용을 피의자가 답변하는 전문기록이 아님. 간략히 줄여서 입력함으로써 피의자의 용어가 아닌 검사의 용어로 입력되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오류를 방지하고자 28명을 채용하였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력이 확대되지 못하여 속기조서 작성이 안 되고 있음.
- ‘속기조서의 장점’을 정리하여 각계 기관에 전달이 필요함.

□ 경찰청

- 직접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조사가 방대함. 시범사업으로 사회적인 사건, 장기 10년 이상의 사건 조사 시에 속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IV. 맺는 말

- 한국은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수만 해도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2023년 4월 19일 4·19 혁명, 동학농민혁명 기록까지 모두 19건을 보유한 ‘기록의 나라’다.
-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최고통치자인 왕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였고, 당대 왕은 열람할 수도 없게 하는 엄격함, 외침과 화재에 대비한 5대 사고(史庫)를 보유하여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것은 현대의 공공기록물 관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할 것이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작 기록이 필요한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법원, 검찰, 경찰, 교육위원회 등에 과연 국민을 위한 기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결국 속기산업 활성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 속기산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첫째, 신기술 접목. 둘째, 법령(조례) 제정. 셋째, 인권 신장을 통한 시장확대가 필요하다.
- 이상 세 가지는 속기사로서, 대한속기협회 회원으로서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할 때 대한민국의 속기산업은 속기인력 양성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속기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로 여론조성 필요

박호규

1. 속기산업의 활성화 방안

-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길이 결국 속기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검수완박, 검수원복, 검찰독재, 대기업 재벌독재, 노조비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속기사가 그와 관련한 내용을 미리 기록물로 남겼다면, 또는 남기도록 법제화했다면 이런 비리들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것이다.
-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공공회의라든지 심지어 일반 회사에서도 속기사가 기록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2. 속기와 공신력

- 법원 속기사의 인력채용 확대는 그나마 고무적이지만 검찰청, 경찰청, 교육위원회 속기 등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 절감차원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권력을 가진 이들의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가감없는 기록이야말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속기의 공신력을 제고할 것이다.

3. 조선시대 기록에 관한 인식

-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사관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그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 속기사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권력자의 심기불편 여부를 떠나서 애초부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민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4.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방법

- 이번 시간 주제인 ‘속기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안에서 속기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다.
-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은 포털에 기사를 실어도 좋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현재 활용 가능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속기사가 기록으로 남겼다면’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였다면’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꾸준히 올리고 퍼 나르고, 또 그런 글들이 자꾸 쌓여가고 모두 공유할 때 그 글을 본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 작은 실천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국회의원기록 서비스 발전방향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수요자 중심의 국회회의록 서비스 발전방향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모든 패러다임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ICT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시도가 이미 공공기관에서 시작되어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공공부문 신기술 수요 창출 및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여러 가지 신기술의 공공부문 조기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기술 안정성, 사회 수용성, 서비스 실효성 등을 검증하고 법제도 개선 근거를 제공하여 조기 상용화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시대에 발 맞추어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²⁾를 비롯해서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³⁾를 국회도서관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현재 21대 국회까지 이어온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된 권한에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려면 지속적으로 국회 및 국회의원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입법을 하고 어떤 발언을 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국회 기록, 즉 국회회의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2020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우수성과 사례집』

2) <https://dataset.nanet.go.kr/>

3) <https://argos.nanet.go.kr/main/lawqna/lawqnaMain.do>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국회의회의록도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대변혁일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처럼 국민들은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적용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 회의록시스템도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논문은 현 시점의 국회 회의록시스템과 회의록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개선점을 찾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기술들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T 기술의 발전에 있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도입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기록물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회 회의록시스템 사용 도중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챗봇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고자 한다.

II. 회의록의 이해

이 장에서는 국회의회의록의 정의와 종류, 국회의회의록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서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법과 현재 국회의회의록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시초를 마련한 국가인 영국의 회의록 온라인 서비스와 우리나라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회의록시스템의 연구를 통해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국회의회의록

1.1. 국회의회의록의 정의와 종류

국회의회의록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및 정책 그리고 예산의 심의·의결 과정을 있는 그대로 작성한 민의(民意)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회의록은 국회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료(史料)이기도 하다.⁴⁾ 그러므로 의회 연구자들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려는 국민들에게는 국회회의록이야말로 가장 신빙성 있고 가치 있는 기록물이다.

2018년 국회사무처에서 편찬된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에 의하면 국회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고 의사일정, 보고사항, 표결내용 등 국회법⁵⁾에 규정된 회의 관련 정보와 참고자료를 기재한 공식 기록물을 국회회의록이라고 하며 회의체·발간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⁶⁾ 국회회의록의 종류는 회의체 기준에 따라 본회의회의록, 위원회회의록, 국정감사회의록, 국정조사회의록, 소위원회회의록으로 구분하며 발간 특성을 기준으로 하면 임시회의록, 전자임시회의록, 배부회의록, 전자회의록, 보존회의록, 비공개회의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발간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책자회의록, 전자회의록으로 구분하며 게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본호와 부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특히 발간 형태를 기준으로 한 책자회의록과 전자회의록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책자회의록은 회의별, 차수별로 회의 내용을 인쇄하여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차수별 회의록과 보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연도별, 회별, 회의별로 구분하여 제본한 제본회의록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회의록은 인터넷상에서 이미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 관리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하는데 이는 국회 내부망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한 전자임시회의록과 자구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3일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전자회의록으로 구분된다.

1.2. 국회회의록시스템 현황

국회회의록시스템⁷⁾은 국회 정보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2001년~2003년)에 따라 정보화 핵심 추진과제인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중 하나로 2002년에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한글과 PDF 파일의 형태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비공개회의와 불게재부분은 제외하고

4) 윤대근, 남태우(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p2.

5) 국회법 제69조 및 제115조에 근거.

6) 국회사무처(2018).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p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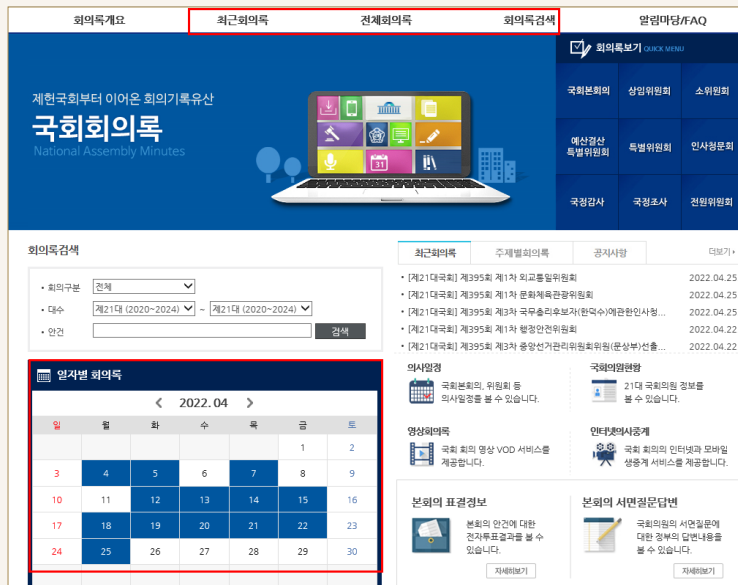
7) <http://likms.assembly.go.kr/record/>

공개된다. 이러한 회의록시스템⁸⁾의 구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국회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면서 국회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국회의의록은 국회의의록시스템을 통해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국회에서 기록된 공개 가능한 모든 회의록은 이 국회의의록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어 책자회의록 형태로만 발간되어 열람에 불편함을 겪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국회의의록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2.1. 국회의의록시스템 열람방법

국회의의록시스템에서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일자별 회의록 메뉴에서 해당 날짜를 찾아 회의록을 선택하여 열람하는 방법과 최근회의록, 전체회의록 메뉴에서 해당 회의록을 찾는 방법 그리고 회의록검색 메뉴에서 키워드를 검색한 후 선택하여 열람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1> 메인 화면의 왼쪽 하단에 일자별 회의록 달력이 표출되어 있는데 찾고자 하는 회의가 개최된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일자별 회의록을 통한 검색은 회의명은 정확히 모르나 회의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회의록을 찾기에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국회 회의록시스템 메인 화면



8) 국회의사무처(2018).『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p126.







최근회의록 메뉴를 클릭하면 회의 종류별로 한 화면에 5개씩 나타나는데 그 이전 회의록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의 ‘더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회의록의 목록 전체를 볼 수 있다. 이 목록은 검색하는 시점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부터 회의록시스템에 등록된 회의록을 순서대로 보여 준다.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회의체의 회의록을 한눈에 보기에 편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체회의록 메뉴에서는 제헌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공개된 모든 종류의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의록 종류는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공청회, 청문회로 구분되어 있다.

회의록 검색 메뉴에서는 검색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회의록을 찾아볼 수 있다. 검색 조건은 회의구분, 대수, 회수, 위원회, 안건, 내용, 발인자,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독 또는 여러 조건을 복합으로 설정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결과는 날짜순 또는 정확도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1.2.2. 국회회의록시스템의 부가정보 열람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는 본회의 표결정보와 본회의 서면질문답변에 대한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그림 2> 본회의 표결정보 및 본회의 서면질문답변 바로가기

<p>의사일정</p>  <p>국회본회의, 위원회 등 의사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p>	<p>국회의원현황</p>  <p>21대 국회의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p>
<p>영상회의록</p>  <p>국회 회의 영상 VO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인터넷의사중계</p>  <p>국회 회의의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본회의 표결정보</p>  <p>본회의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p> <p>자세히보기</p>	<p>본회의 서면질문답변</p>  <p>국회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p> <p>자세히보기</p>

본회의 표결⁹⁾이란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의장의 표결 선포에 따라 의원이 정해진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의사를 나타낸 후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표결 결과를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의의록시스템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본회의 표결정보에서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보고 싶은 의안별 표결정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그림 3>과 같이 표출된다.

본회의 서면질문답변은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서면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행하는 대정부질문과 다르기 때문에 발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면질문¹⁰⁾은 구두질문(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구두질문에 비해 명확성 및 기록성을 제고할 수 있어 국회의 대정부 비판 및 감사권의 충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정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의록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본회의 서면질문답변 메뉴에서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회의 서면질문답변 목록이 표출된다. 이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본회의 표결정보



9)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10)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그림 4> 본회의 서면질문답변

회의록개요	최근회의록	전체회의록	회의록검색	알림마당/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회의 서면질문답변 본회의 표결정보 회의록 관련서식 주제별회의록 공지사항 FAQ 	<h3>본회의 서면질문답변</h3> <p>[전체 : 2812건] 내용 <input type="text"/> 검색 10개 ▾</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대수</th> <th>회기</th> <th>차수</th> <th>내용</th> <th>회의일</th> <th>파일</th> </tr> </thead> <tbody> <tr> <td>2812</td> <td>제21대</td> <td>제392회</td> <td>제2차</td> <td>1. 기재부 22년 예산지침 문제에 관한 서면질문에...</td> <td>2022.01.11.</td> <td></td> </tr> <tr> <td>2811</td> <td>제21대</td> <td>제392회</td> <td>제1차</td> <td>1.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서...</td> <td>2021.12.31.</td> <td></td> </tr> <tr> <td>2810</td> <td>제21대</td> <td>제392회</td> <td>제1차</td> <td>2. 철도궤도공사업 부정등록에 관한 서면질문</td> <td>2021.12.31.</td> <td></td> </tr> <tr> <td>2809</td> <td>제21대</td> <td>제391회</td> <td>제14차</td> <td>1. 외교부 국회 대응에 관한 서면질문</td> <td>2021.12.09.</td> <td></td> </tr> <tr> <td>2808</td> <td>제21대</td> <td>제391회</td> <td>제12차</td> <td>1. 국회의원 요구자로 사기업 유출건에 관한 서면질...</td> <td>2021.12.02.</td> <td></td> </tr> <tr> <td>2807</td> <td>제21대</td> <td>제391회</td> <td>제12차</td> <td>2.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표 사본에 관한 서면질...</td> <td>2021.12.02.</td> <td></td> </tr> <tr> <td>2806</td> <td>제21대</td> <td>제391회</td> <td>제12차</td> <td>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서...</td> <td>2021.12.02.</td> <td></td> </tr> </tbody> </table>				번호	대수	회기	차수	내용	회의일	파일	2812	제21대	제392회	제2차	1. 기재부 22년 예산지침 문제에 관한 서면질문에...	2022.01.11.		2811	제21대	제392회	제1차	1.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서...	2021.12.31.		2810	제21대	제392회	제1차	2. 철도궤도공사업 부정등록에 관한 서면질문	2021.12.31.		2809	제21대	제391회	제14차	1. 외교부 국회 대응에 관한 서면질문	2021.12.09.		2808	제21대	제391회	제12차	1. 국회의원 요구자로 사기업 유출건에 관한 서면질...	2021.12.02.		2807	제21대	제391회	제12차	2.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표 사본에 관한 서면질...	2021.12.02.		2806	제21대	제391회	제12차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서...	2021.12.02.	
번호	대수	회기	차수	내용	회의일	파일																																																						
2812	제21대	제392회	제2차	1. 기재부 22년 예산지침 문제에 관한 서면질문에...	2022.01.11.																																																							
2811	제21대	제392회	제1차	1.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서...	2021.12.31.																																																							
2810	제21대	제392회	제1차	2. 철도궤도공사업 부정등록에 관한 서면질문	2021.12.31.																																																							
2809	제21대	제391회	제14차	1. 외교부 국회 대응에 관한 서면질문	2021.12.09.																																																							
2808	제21대	제391회	제12차	1. 국회의원 요구자로 사기업 유출건에 관한 서면질...	2021.12.02.																																																							
2807	제21대	제391회	제12차	2.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표 사본에 관한 서면질...	2021.12.02.																																																							
2806	제21대	제391회	제12차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서...	2021.12.02.																																																							

1.2.3. 국회회의록시스템 파일 내려받기

현재 국회회의록은 한글 파일과 PDF 파일 두 가지 종류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5> 한글파일로 열람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회의록 내용을 텍스트로 볼 수 있을 뿐 안전 정보가 궁금할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여 다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림 5> 국회회의록 한글 파일 화면

제393회 - 제1차(2022년1월27일) 1		
제393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2022년1월2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9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2114591)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상정된 안건		
1. 제39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591) 1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		
(14시24분 개의)		
○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 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면 <그림 6> PDF 파일로 열람할 경우 2단으로 구성된 화면에서 왼쪽에는 회의록 본문이 나타나고 영상회의록 보기, 상정된 안건 정보보기가 가능하다. 영상회의록 보기를 클릭하면 영상회의록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 상정된 안건 정보보기를 클릭하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그 안건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국회의의록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국회의의록시스템은 회의체라는 기록물에 기반을 두어 회의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국회의의록을 열람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의록을 열람한 후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공유하여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째, 국회의의록시스템의 회의록검색은 다양한 조건을 기반으로 한 상세검색의 형태여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검색 방법이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검색 범위나 검색 조건이 나타나고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쉽고 편리한 검색 기능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¹¹⁾

<그림 6> 국회의의록 PDF 파일 화면



둘째, 회의록 내려받기 형식이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는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hwp와 PDF 파일 형식으로 서비스가 되어 별도의 뷰어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회의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11) 문선희(2019). 국회 회의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p.42.

셋째, 국회회의록시스템은 본문 영역이 좌우 2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세로 판형을 사용하는데 이는 출력물 기반형일 경우 효과적이나 가로가 긴 현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는 가독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회 회의록은 모든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하여 출력 후 자료로써 전문을 검토하기에는 종이자원의 소모와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¹²⁾

넷째,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안건의 제목만 표기를 하고 상세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게재부록 혹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는 수정되어 현재 PDF 보기에서는 투표결과와 같은 부록게재 사항들은 회의록 끝에 따로 첨부되어 있으며 회의록의 내용과 동시에 오른쪽에 표출되는 상정안건을 클릭하면 투표결과 화면으로 이동이 되어 투표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인물 표기는 회의상 직책과 직위만 표기되어 있고 해당 인물의 당적이나 약력은 표기되지 않는다. 회의록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환경, 당파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회의록 자체로써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의원의 당적과 약력을 바로 알 수 있다면 발언의 맥락도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¹³⁾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는 회의록 검색 방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현재 제공하는 파일 형식인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형식을 벗어나면 더 유용한 형태로 가공되고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록 전체를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이 되고 이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 및 발언자, 안건, 회의 단위로 검색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데이터셋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헤매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데이터 중심의 사고가 회의록시스템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회의록 사례

2.1. 영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영국 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은 헨서드 온라인 사이트와 They Work For You¹⁴⁾라는 민간 시스템이 있다.

12) 이준원(2020). 웹 환경에서 회의록 검색과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p11.

13) 이준원(2020). 웹 환경에서 회의록 검색과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p12.

14) <https://www.theyworkforyou.com/>

1997년부터 양원의 핸서는 의회 웹사이트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2016년부터 영국 의회에서 핸서드 온라인(Hansard Online)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영국의회의록 온라인 서비스의 종류는 「핸서드 온라인」, 「역사 핸서드」, 「의사록모음집」이다. 그리고 이를 서비스하는 웹 페이지는 핸서드 온라인과 역사 핸서드가 있다. 의사록모음집은 일일 회의 내용을 요약한 표결 및 의사기록부의 약 12개월 기간의 세션에 해당하는 분량을 모아서 권별로 편찬한 모음집이다.¹⁵⁾

반면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TheyWorkForYou는 영국 자선단체인 mySociety의 의회 모니터링 웹 사이트로서 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 발언된 모든 단어의 전체 아카이브와 투표 기록 및 과거, 현재의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정보를 게시하여 영국 정치인이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¹⁶⁾

2.1.1. 핸서드(Hansard) 온라인

핸서드 온라인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춰서 웹 페이지가 조정되어 표출되기 때문에 모바일, 태블릿 또는 PC에서 핸서드를 보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기능도 향상되어 회의록을 빠르게 검색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공유할 수 있으며 표결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핸서드는 회의가 끝난 뒤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핸서드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¹⁷⁾

핸서드 온라인의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의 초록색 회의록 이미지가 있는 부분은 하원 핸서드 찾기 메뉴이고 오른쪽의 붉은색 회의록 이미지가 있는 부분은 상원 핸서드 찾기 메뉴이다. 그리고 그 하단에 날짜로 검색하기(Browse sittings), 토론 목록 찾기(Find debates), 표결기록으로찾기(Find divisions), 의원별 회의록 검색(Find MPs) 등의 메뉴가 보인다.

15) 최기희(2018). 영국의회의록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p6

16) 이준원(2020). 웹 환경에서 회의록 검색과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p.26.

17) 최기희(2018). 영국의회의록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p12

<그림 7> 헨서드 온라인 첫 화면 <https://hansard.parliament.uk/>

House of Commons Hansard



The latest House of Commons sitting recorded in Hansard is:

SEP 23 2022 **Friday 23 September 2022** >

Latest House of Commons sitting

You can also browse/find House of Commons Hansard content using the links below:


Browse sittings >
Browse the Commons sittings that have been recorded in Hansard.


Find debates >
Find House of Commons debates by keyword and date.


Find divisions >
Find House of Commons divisions


Find MPs >
Find current and former

House of Lords Hansard



The latest House of Lords sitting recorded in Hansard is:

SEP 12 2022 **Monday 12 September 2022** >

Latest House of Lords sitting

You can also browse/find House of Lords Hansard content using the links below:


Browse sittings >
Browse the Lords sittings that have been recorded in Hansard.


Find debates >
Find House of Lords debates by keyword and date.


Find divisions >
Find House of Lords divisions (or


Find Lords >
Find current and former Lords

<그림 8> 토론 목록 찾기(Find debates) 결과

Key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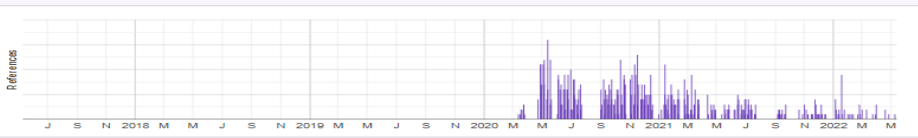
House

Any
 Commons
 Lords

Date from **Date to**

[View all years](#)

Results timeline ([accessibility information](#))



[Search](#)

Total results 911 (page 1 of 46)

1 2 ... 11 > >>

MAY 10 2022 **UK Diagnostics Industry and Covid-19 Recovery** >

10 May 2022
Commons Chamber Commons

APR 26 2022 **Future of Small Cities Following Covid-19** >

26 April 2022
Westminster Hall Commons

APR 19 2022 **Covid-19: Public Inquiry** >

19 April 2022
Westminster Hall Co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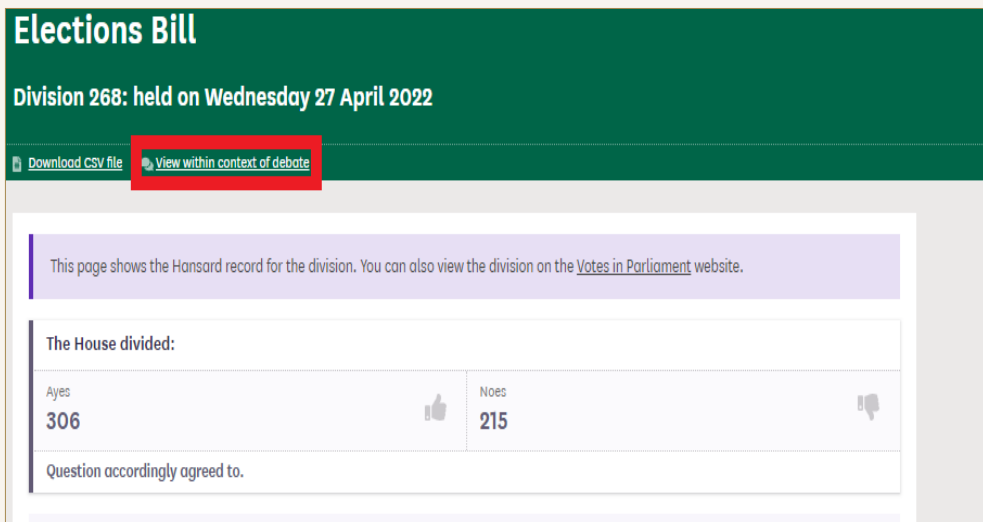
APR 19 2022 **Covid-19 Pandemic: Royal Mail Services** >

19 April 2022

98 대한속기협회

먼저 Find debates 메뉴로 들어가 검색창에 'Covid'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림 8>과 같이 검색 결과가 표출된다. 최근 5년간 토론 목록 분포도가 막대그래프로 표시되어 나타나고 그 밑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토론 목록의 건수를 보여 준다. 이 중 보고 싶은 토론 목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토론 내용을 볼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의원 성명을 클릭하면 자동 연결되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토론 목록의 장점은 날짜마다 각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따로 검색해서 토론 내용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림 9> 토론의 맥락에서 보기(View within context of debate)



그리고 토론 결과가 궁금할 때는 해당 토론 주제를 검색한 후 <그림 9>와 같이 'View within context of debate'를 클릭하면 검색한 주제의 토론 내용을 보여 주고 내용 밑에 <그림 10>과 같이 표결 결과도 함께 보여 주어서 토론 내용과 표결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표결 기록 찾기는 헨서드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서 'Find divisions' 메뉴를 클릭한 후 표시된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연관된 표결 목록이 표출되는데 이 중에서 찾고자 하는 표결 목록을 클릭하면 찬성의원 성명과 반대의원 성명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결 결과를 보여 주는데 예를 들면 투표 결과가 표출된 화면에서 보면 Listing type의 메뉴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List by Member'를 체크하면 찬반의원의 성명이 확인 가능하고 'List by party/group'를 체크하면 찬반 정당이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Charts view'를 체크하면 <그림 11>과 같이 이상의 정보들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출되어 한눈에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10> 토론 맥락(View within context of debate)에서 표결 결과 보기

I thank the hon. Members for Belfast East (Gavin Robinson) and for Strangford (Jim Shannon), who very eloquently and strongly explained that voter turnout in Northern Ireland was not impacted by the introduction of photographic ID. That is yet another straw man. It is not true, and they said it far better than I ever could. The hon. Member for Strangford sought reassurances about a number of measures. I do not have the correct information to do so now, but I will ensure that my officials provide him with a comprehensive response.

I hope, in returning the Bill to their lordships, that hon. Members can send a clear message on the vital importance of ensuring that our elections remain secure, fair, transparent and up to date. The Bill delivers on the Government's manifesto commitment to ensure the integrity of our elections and it will protect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our elections while feeling confident that the vote is theirs and theirs alone. I commend the Bill to the House.

Question put, That this House disagrees with Lords amendment 22.

Division 268 >

The House divided:

Ayes 306	Noes 215
--------------------	--------------------

Question accordingly agreed to.

Held on 27 April 2022 at 4.12pm

Lords amendment 22 disagreed to.

<그림 11> Find divisions 검색 결과 Charts view

This page shows the Hansard record for the division. You can also view the division on the [Votes in Parliament](#) website.

The House divided:

Ayes 263	Noes 365
--------------------	--------------------

Question accordingly negated.

Listing type

List by Member
List by party/group
Charts view

Members voting Aye

Party	Percentage
Labour	74.9%
Scottish National Party	16.3%
Other Parties	8.8%

Members voting No

Party	Percentage
Conservative	97.5%
Democratic Unionist Party	1.5%
Independent	1.0%

마지막으로 의원별 검색 기능(Find MPs)을 살펴보겠다. 헨서드 메인 페이지 하단의 'Find MPs'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12>와 같이 검색창이 나온다.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의원 이름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사진과 함께 나열된 의원 이름을 직접 클릭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림 12> Find MPs 검색 화면

Find Members

This search is for looking up Members and their Hansard records. For more comprehensive Member information, visit the UK Parliament [MPs and Lords website](#). We will look at options for creating a more unified search in the future.

Name or title

House

Any
 Commons
 Lords

Date from

Date to

[View all years](#)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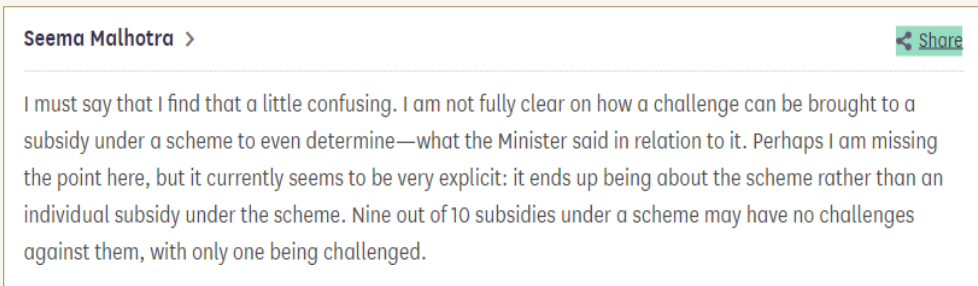
Any
 Current
 Former

Total results **648** (page 1 of 3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Ms Diane Abbott ></p> <p>Labour</p> <p>Hockney North and Stoke Newington (1987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Debble Abrahams ></p> <p>Labour</p> <p>Oldham East and Saddleworth (2011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Nigel Adams ></p> <p>Conservative</p> <p>Selby and Ainsty (2010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Bim Afolami ></p> <p>Conservative</p> <p>Hitchin and Harpenden (2017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Adam Afrfyle ></p> <p>Conservative</p> <p>Windsor (2005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Nickle Alken ></p> <p>Conservative</p> <p>Cities of London and Westminster (2019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Peter Aldous ></p> <p>Conservative</p> <p>Waveney (2010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Rushanara Ali ></p> <p>Labour</p> <p>Bethnal Green and Bow (2010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Tahr Ali ></p> <p>Labour</p> <p>Birmingham, Hall Green (2019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Lucy Allan ></p> <p>Conservative</p> <p>Telford (2015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Dr Rosena Allin-Khan ></p> <p>Labour</p> <p>Tooting (2016 - pres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Mike Amesbury ></p> <p>Labour</p> <p>Weaver Vale (2017 - present)</p> </div>

헨서드 온라인 서비스 중 잘되어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이다. 헨서드 온라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해서 알렉스 뉴턴 하원 헨서드 편집장은 “영국 의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회의나 회의록을 듣거나 읽을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장소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새로운 헨서드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헨서드를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만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기 쉽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의회 논의 과정을 담은 헨서드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하고 의회와 시민들 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그림 13> SNS 공유 기능



2.1.2. TheyWorkForYou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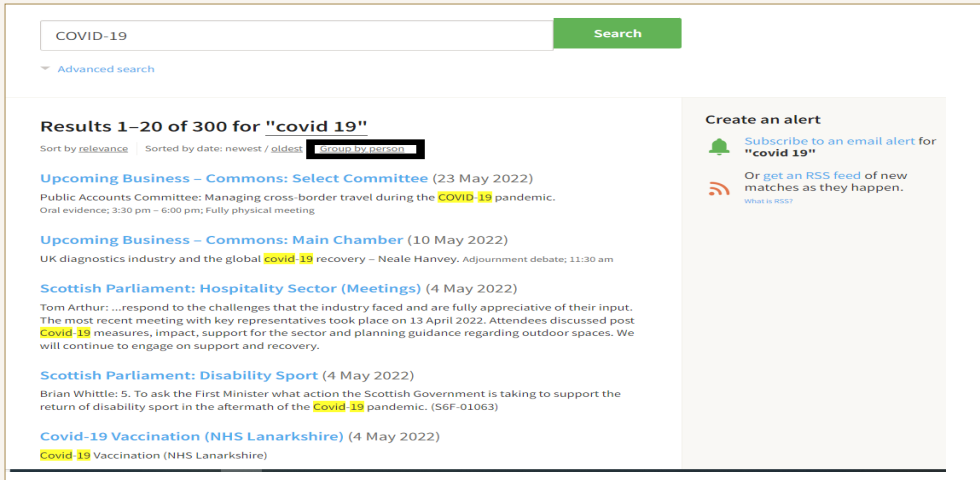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TheyWorkForYou는 의회모니터링 웹사이트로서 영국 시민들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의사결정을 손쉽게 검색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 또한 의회에서 발언된 모든 단어의 전체 아카이브와 투표 기록 및 과거, 현재의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정보를 게시하여 영국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8) 최기희(2018). 영국의회 회의록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p.51

19) 이준원(2020). 웹 환경에서 회의록 검색과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p.26.

<그림 14> theyworkforyou 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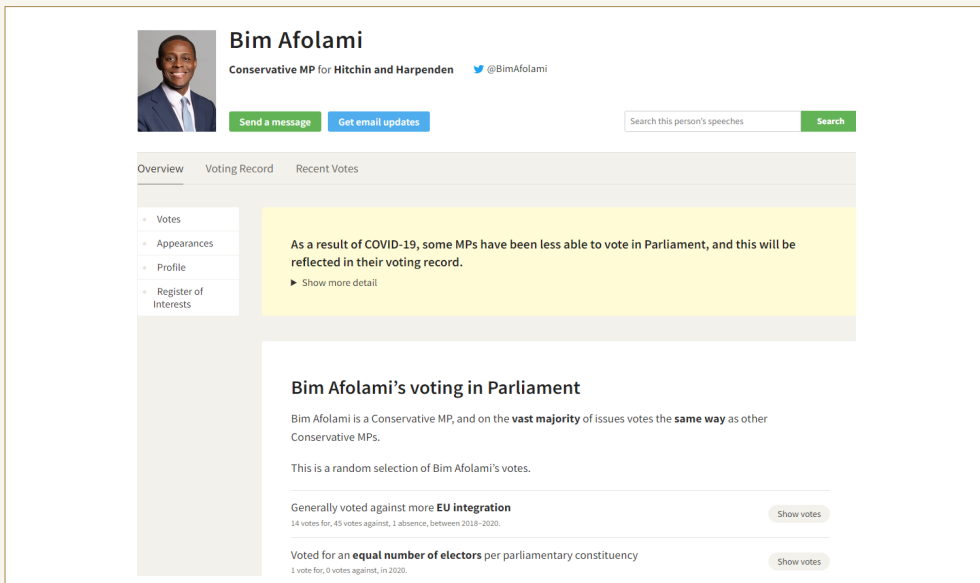
https://www.theyworkforyou.com/search/?q=+COVID-19+



<그림 14>는 theyworkforyou에서 ‘covid-19’로 검색했을 때의 결과 화면이다. covid-19로 검색되는 회의록의 목록들이 표출되는데 상단 메뉴 중에 ‘Group by person’을 클릭하면 covid-19를 가장 많이 발언한 인물 순으로 회의록 내용이 나타난다.

<그림 15> 인물 프로필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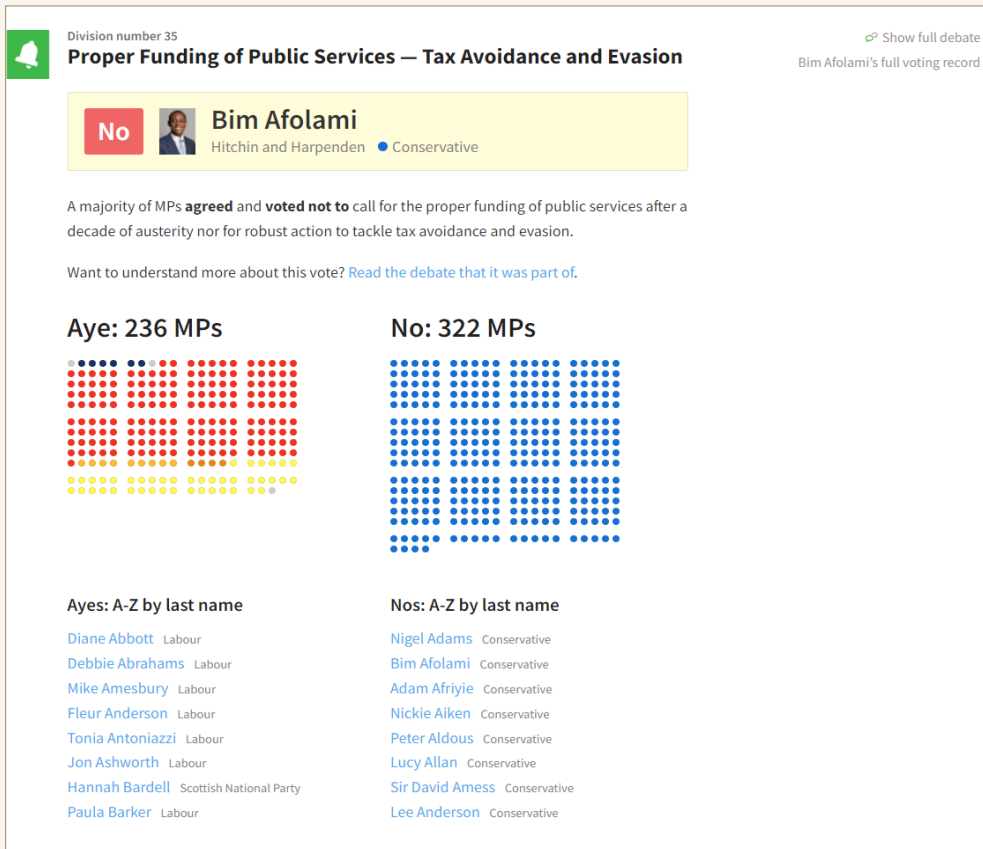
https://www.theyworkforyou.com/mp/25661/bim_afolami/hitchin_and_harpenden






<그림 15>는 검색화면에서 인물의 사진과 이름을 클릭했을 때 표시되는 화면이며, 요약(Overview)에는 최근 의회에서 참여한 투표, 행적, 프로필, 통계, 관심사가 나와 있고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한다. 투표기록(Voting Record)에서는 해당 인물의 성향을 알 수 있고, 'Show Votes'를 클릭하면 안건의 히스토리를 보여 주고 각각 심사단계에서 표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림 16>은 투표 결과 화면이다. 오른쪽의 'Aye'는 찬성, 왼쪽의 'No'는 반대를 의미한다. 회의록의 게재부록으로 들어가는 안건에 대한 의원의 찬반을 찬성, 반대에 따라 점으로 시각화하고 찬성, 반대 중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색을 나누어 정보 소비자들이 안건에 대한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점으로 표시된 부분 하단에는 찬반 의원들의 전체 명단이 표시되어 있고 각각 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의원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어 어떤 의원이 찬성표, 반대표를 던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16> 투표 결과의 시각화



<그림 17> TheyWorkForYou 시스템에서의 회의록 본문

	<p>Richard Holden Conservative, North West Durham</p> <p>Lower-paid, and especially young part-time workers, do not currently benefit from tax relief or employers' contributions towards pensions under the auto-enrolment scheme. Will the Minister speak to colleagues across Government to look at extending auto-enrolment to lower-paid workers, to ensure that they get the long-term benefits?</p>	<p>Link to this speech</p> <p>In context Individually</p> <p>Tweet Share</p> <p>(Citation: HC Deb, 1 February 2022, c135)</p>
	<p>Simon Clarke The 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p> <p>My hon. Friend has campaigned consistently on this theme. I would certainly be very happy to have further discussions with him about it. It is worth noting, and celebrating,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in low-paid work is actually at its lowest since records began in 1997.</p>	<p>Link to this speech</p> <p>In context Individually</p> <p>Tweet Share</p> <p>(Citation: HC Deb, 1 February 2022, c135)</p>
	<p>Geraint Davies Labour, Swansea West</p> <p>The Trussell Trust finds that three out of four referrals are disabled people, and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nds that people who work online at home are more likely to work longer and not retire early, particularly if they are disabled. So will the Chancellor, the Treasury and the Minister look at the idea of promoting working from home after the pandemic, to help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people to be more productive, and at the same time target more support for those in greatest need, as we have found from the Trussell Trust?</p>	<p>Link to this speech</p> <p>In context Individually</p> <p>Tweet Share</p> <p>(Citation: HC Deb, 1 February 2022, c135)</p>

They Work For You에서는 별도의 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웹 화면에서 회의록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데이터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림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푸른색 글씨들을 클릭하면 관련된 사안, 인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의 해설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대한 전체 맥락을 보고 싶다면 'In Context' 버튼을, 해당 발언을 독립적으로 보고 싶으면 'Individually' 버튼을 누르면 된다. SNS 계정이 있는 경우 소셜 미디어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단락을 바로 공유할 수도 있다.²⁰⁾

이 시스템은 인물 검색 위주로 회의록을 살펴볼 때 유용하다. 개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투표 결과는 해당 인물의 정치적 성향으로 색을 표시하여 색을 통해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당파의 성향이나 정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든다.²¹⁾

2.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시스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56년 56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하였으며 현재는 제11대 의회에서 110명의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10개의

20) 이준원(2020). 웹 환경에서 회의록 검색과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p.31.

21) 이준원(2020). 웹 환경에서 회의록 검색과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p.45.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사이트²²⁾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회의록의 종류와 회의록 사이트 구성은 같은 의회 기관이라 국회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차이점들이 눈에 띈다. 이하에서는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8>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나타나는 회의록 화면이다. 별도의 뷰어프로그램이 없이도 웹 환경에서 바로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다. 화면은 크게 좌측의 부가 정보와 우측의 회의록 본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단 좌측의 'PDF 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회의록 본문 내용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단 우측의 'T' 버튼을 누르면 글자체, 글자 크기, 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서 저시력자들이 확대 화면으로 편하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좌측 화면은 검색 창, 심사안건, 관련 부록, 관련 회의록, 발언의원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 창을 통해서 해당 회의록 내의 발언 검색이 가능하고, 심사안건을 클릭하면 회의록 안에서 해당 안건으로 이동한다. 또한 관련 부록을 클릭하면 부록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록을 클릭하면 해당 위원회의 다른 차수 회의록의 바로보기가 가능하다.

<그림 1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화면



22) <https://ms.smc.seoul.kr/kr/assembly/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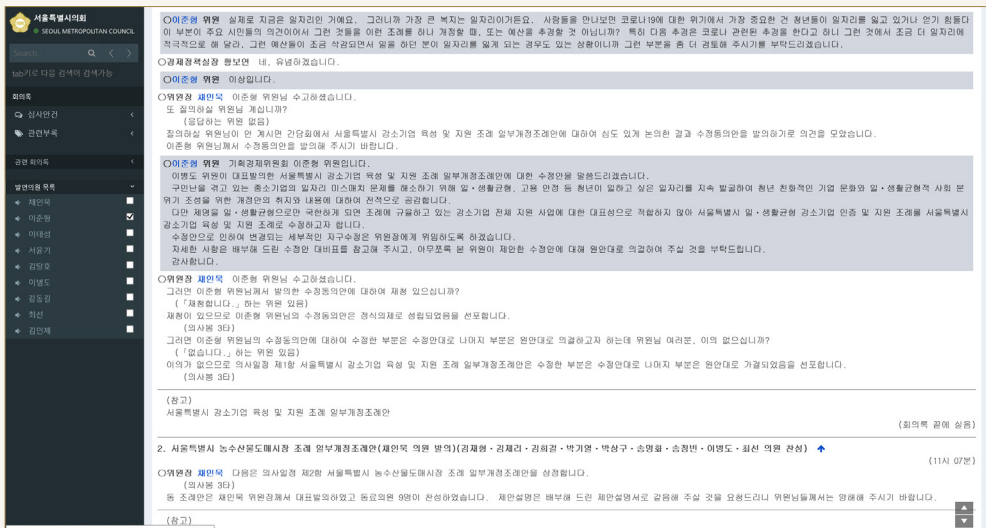
<그림 19> 발언의원 정보 팝업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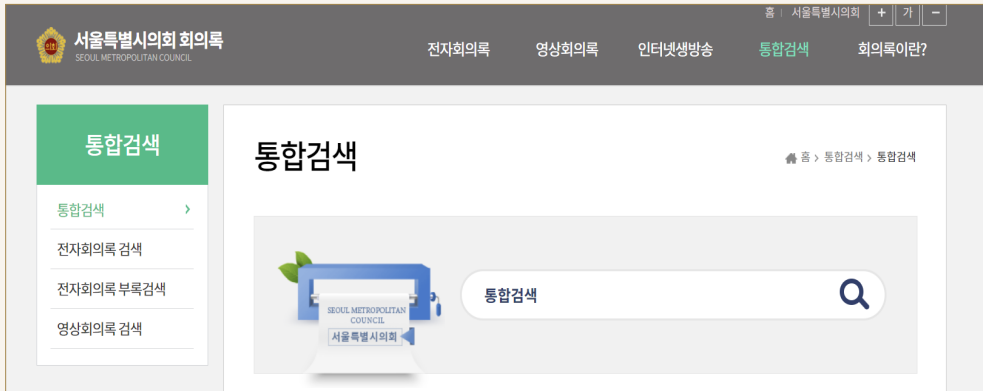
회의록 본문에서는 발언자 이름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그 이름을 클릭하면 <그림 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원의 인물정보를 알려 주는 팝업창이 떠서 회의록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도 바로 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발언의원 목록에서 해당 회의록에서 발언한 의원들의 이름을 표시해 주는데 필요한 의원 이름을 체크박스에서 선택하면 선택한 의원의 발언 부분만을 모두 찾아 회색으로 블록 처리하여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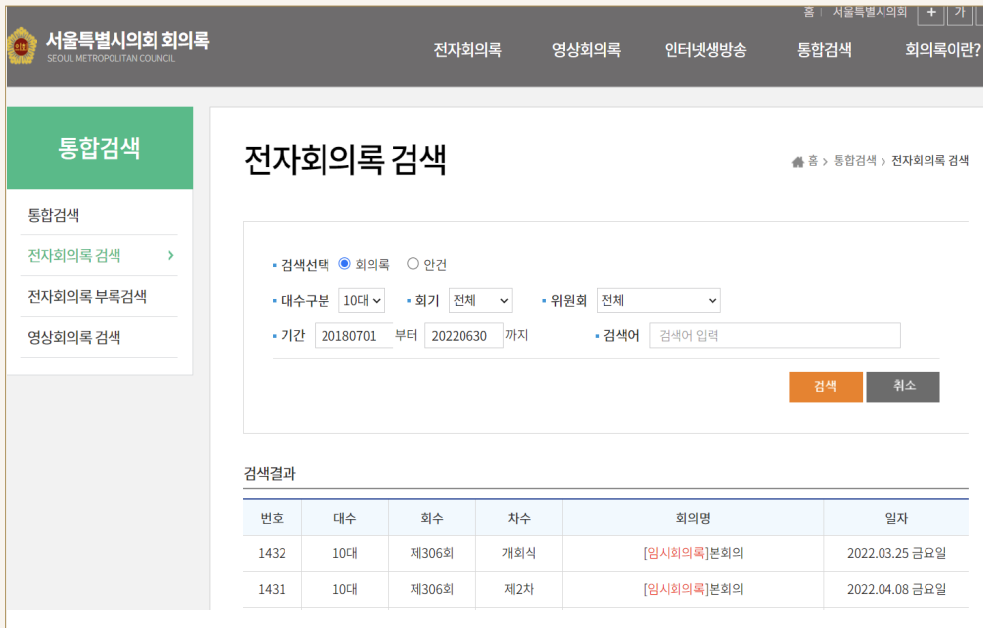
<그림 20> 회의록에서 발언의원 선택 시 나타나는 화면



<그림 2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통합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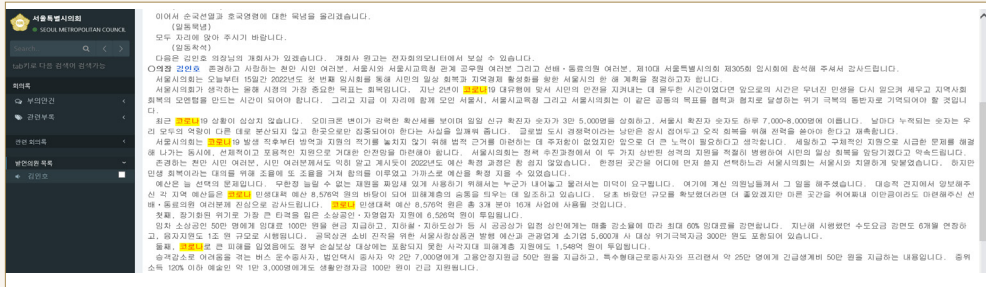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록 검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검색은 통합검색 창을 이용하거나 전자회의록 검색 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림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을 하면 전자회의록, 안건, 부록, 영상회의록으로 나누어 각각 몇 건의 검색결과가 있는지 하단에 보여 준다. <그림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자회의록 검색 페이지에서는 회의록 또는 안건으로 1차 설정한 뒤 대수, 회기, 위원회, 기간, 검색어를 각각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회의체의 구분 없이 하단에 10개씩 표출되고 원하는 회의록을 클릭하면 회의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23> '코로나'로 검색한 회의록 본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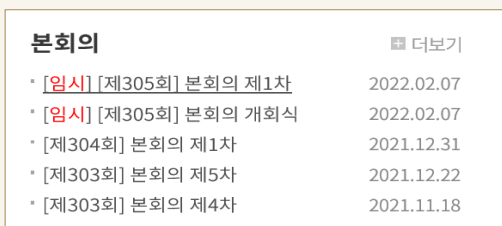
<그림 23>는 '코로나'라는 단어로 회의록을 검색한 뒤 열람한 회의록 본문 화면이다. 해당 회의록 안의 '코로나'라는 글자를 모두 찾아서 노란색으로 블록 처리한 화면을 보여 주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4> 전자회의록 부록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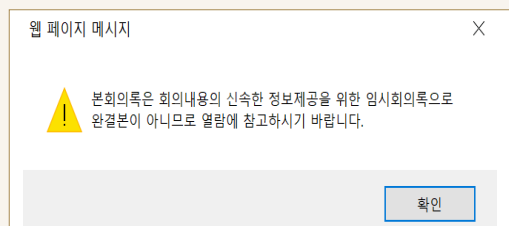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시스템에서는 전자회의록 부록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자들이 부록검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돕고 있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인 페이지, 통합검색, 전자회의록 부록검색으로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부록검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검색 조건은 대수 구분, 회기, 위원회, 기간, 검색어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한 뒤 부록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5> 임시회의록안내 표시 화면



<그림 26> 임시회의록 안내 문구 팝업창 화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시스템에서는 임시회의록과 최종 회의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임시회의록의 경우 임시회의록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그림 25>와 같이 회의록 목록에서 회의록 제목에 빨간색으로 ‘임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임시회의록을 클릭하면 회의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림 26>과 같이 ‘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의 팝업창이 뜨면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임시회의록임을 인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Ⅲ.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기록 서비스

이 장에서는 시대의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록의 생산 및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기록의 생산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네 가지 기술들을 선별하여 이 기술들의 개념과 특징, 적용 분야를 정리하고 대표적 기술들을 이용한 업무 활용 방안과 서비스 제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최근 공공업무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본격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디지털기술의 개념과 동향

디지털기술이란 AI, 빅데이터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이나 서비스들을 혁신하는 기술을 말한다. 2010년대 이후 신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고 정부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집중으로 기술 발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등이 있다.²³⁾

23) http://wiki.hash.kr/index.php/%EB%94%94%EC%A7%80%ED%84%B8_%EA%B8%B0%EC%88%A0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초연결사회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재도약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CPS²⁴⁾(Cyber Physical System)의 구현에 따라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가상현실·증강현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어느덧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 전 부분의 변화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 간, 개인과 사물 간, 사물 간 대량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생성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분석되며 인공지능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 환경의 변화는 기술 분야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일상생활,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즉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생활에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 분야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산업 간 융합도 더욱 빨라질 것이다. 최근의 방송, 금융, 에너지,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기존의 산업 간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역의 산업 확장을 보여 준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과 파급력이 민간·산업부문 못지않게 큰 부문이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기능인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 방식에 변화를 미칠 것이다. 즉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데이터의 축적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책 결정에 있어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정책 결정 영역에서 단순·반복업무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도 축적된 데이터와 디지털기술의 기반하에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정부 운영 성과를 개선하고 정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부문의 혁신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24)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은 물리적 현실세계에서 수집한 각종 센싱 데이터를 컴퓨팅 세계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시 현실세계의 사람과 사물을 제어하는 것으로, 현실과 사이버 세계 혹은 사람과 인공지능이 상호 작용하고 협업하는 시스템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술 개혁을 위한 25개의 실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공청렴도 향상, 효율적 공적자원 관리,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서 26개 열린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기술위원회(ATC) 설치를 통해 연방정부의 디지털서비스 혁신 및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범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해커톤을 통한 프로토타입으로는 음성인식비서, 챗봇, 지능형웹사이트, 자동화콜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디지털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 2012~2017)’에 이어 ‘정부변혁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을 통해 디지털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정부 운영방식의 혁신,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2년 ICT를 활용한 전략으로서 ‘Active Japan ICT 전략’에 이어 주요 국가전략인 ‘세계 최첨단 IT 국가창조 선언’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있다. 2017년에 이루어진 개정에서는 민관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와 데이터 활용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제안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국가전략과 혁신의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디지털기술의 활용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제공·운영 방식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정부 내 조직 혁신과 대외적 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도 보다 편리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²⁵⁾

국가기록원은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기록관리법과 제도의 개편,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와 기록시스템 표준모델의 재설계, 지능형 서비스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열린 2차 워크숍에서는 3대 전략 10대 어젠다의 주요 내용과 클라우드 기반의 모듈화된 기록시스템 모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서비스 모델이 제시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서울기록원 개원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의 이러한 모형을 토대로 마이크로서비스 방식의 모듈화된 기록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고 또한 머신러닝 기술의 적용방안 등 신기술의 도입 방안을 연구하였다.²⁶⁾

25)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pp12-14.

26)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기록학연구54, p215.

2. 디지털기술의 유형

2.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란 구매하여 설치하지 않고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다. 정보가 인터넷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 태블릿컴퓨터, 노트북, 넷북,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뜻한다. 즉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²⁷⁾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모든 IT 자원을 서비스한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서비스하는 것을 IaaS(Infra as a Service)라고 하고, 개발자들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툴 등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PaaS(Platform as a Service)라고 하고,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완성된 소프트웨어 및 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SaaS(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한다.²⁸⁾

<표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내용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풀(Pool)을 구축하고 사용자들에게 온디맨드 방식으로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PaaS (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만드는 개발자들과 같은 사용자들에게 이를 구축, 설치, 테스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도구, 미들웨어를 포함한 표준화된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SaaS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최상의 계층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중 임대 방식을 통해 ON-demand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p103.

27) [네이버 지식백과]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50825&cid=40942&categoryId=3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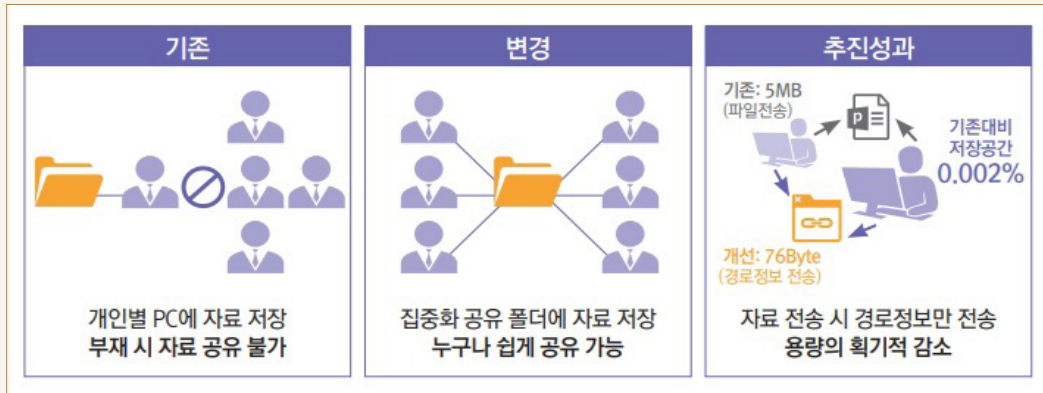
28)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pp102.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기록관리시스템은 타 부처의 기록정보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해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에서 기록 접근이 쉽게 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에 기록관리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유지·보수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및 설치 비용, 업데이트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 엄청난 비용과 시간·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PC에 자료를 보관할 경우 하드디스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손실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외부 서버에 자료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작업한 문서 등을 열람·수정할 수 있다.²⁹⁾ 마지막으로 기관의 이동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록 및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게 되면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³⁰⁾

<그림 27> 문서집중화 시스템

* 동일자료 개인별 보유 Zero화, 타 부서 자료전송 시 경로정보 파일 전송으로 저장공간 획기적 감축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p106.

29) [네이버 지식백과]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50825&cid=40942&categoryId=32828>
 30) [네이버 지식백과]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50825&cid=40942&categoryId=3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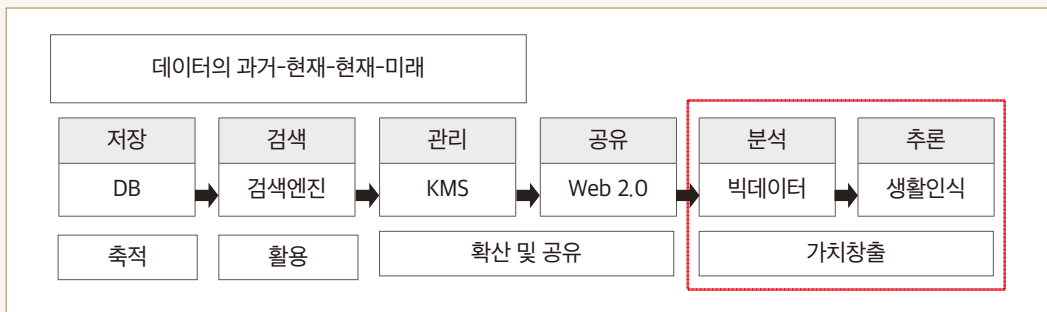
사고에 대한 복구의 일환으로 기록 생산자나 관리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본을 만들어 여러 개의 저장소에 분산시켜 저장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에 따라 서비스용 사본을 별도의 저장소에 두고 관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복구에는 유리하겠지만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에는 혼선이 오게 된다.³¹⁾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기록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설계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관의 방식을 변환해 볼 수 있다.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클라우드 저장소를 공유하게 되면 처리과에서 기록물 이관 시 콘텐츠 파일들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관할 수 있어 비용이 줄고 무결성 훼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³²⁾

2.2 빅데이터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나 도구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등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혹은 넓은 의미로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까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정형데이터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특정 형식에 맞춰 잘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크기와 내용이 달라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로 SNS 관련 데이터, 뉴스게시물, 유튜브 동영상, 사진 등의 데이터이다.

<그림 28>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최경진 외(2012)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1)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225.

32) 임진희(2019). 클라우드 저장소 장점을 활용한 기록 콘텐츠 관리기능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271-292

<표 2> 빅데이터의 형태와 공공기록물 예시

구분	내용	종류	빅데이터 특성을 가진 기록관리 분야
정형 데이터	미리 정해 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 되도록 구성된 데이터	DB, 스프레드시트	기록생산·관리시스템(RDBMS)의 테이블과 같이 고정된 컬럼에 저장되는 데이터, 지정된 행과 열로 데이터의 속성이 정해져 있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등
반정형 데이터	정형데이터처럼 테이블의 행과 열로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스키마로 변환하고 데이터를 매핑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가능	HTML, XML	기록관리 업무로 인해 시스템에 쌓이는 Log 파일
비정형 데이터	정의된 구조가 없이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동영상파일, 사진, 보고서(문서), 메일본문 등	CLOB/BLOB2) 종이보고서(문서), 시청각기록 등의 형식으로 RDBMS 내에 구조화되는 경우도 있음.

* 홍덕용(2021). 공공기록관리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법과 시사점 제언. p5.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Mckinsey)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로서 그 정의는 주관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떤 그룹에서는 빅데이터를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³³⁾ 즉 빅데이터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보다 그 규모가 방대하고 형태도 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다양하며 생성 주기도 짧은 데이터를 말한다.³⁴⁾

오늘날은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확장됨에 따라 빅데이터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빅데이터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그 역할과 기능은 <그림 29>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³⁵⁾

33)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란? (국립중앙과학관 - 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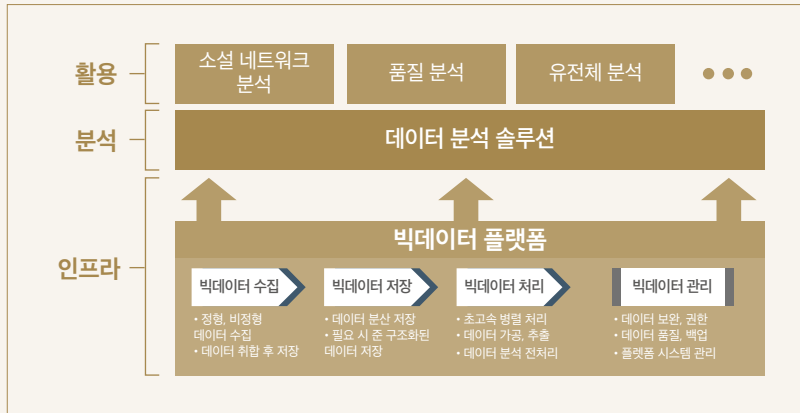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

34)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219.

35)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란? (국립중앙과학관 - 빅데이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

<그림 29>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 국립중앙과학관 - 빅데이터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관리가 필요하며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독립된 형태로 나누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사용된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연산으로 나누고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것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하둡 기반의 오픈소스 플랫폼인 스파크이다.³⁶⁾

글로벌 IT기업들은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한다.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품군들을 묶어 제공하고 통계기법, 머신러닝 등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도가 높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구글은 통계적 기계번역을 통해 수억 개의 번역 문서에서 패턴을 찾아 언어 간 번역 규칙을 컴퓨터 스스로 발견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향상시킨 번역서비스와 검색데이터와 머신러닝에 기반한 AI비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포인트에 인공지능 번역기 기능을 탑재하고 엑셀에 과거데이터 기반의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 주는 ‘forecast’ 기능을 추가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문서정리 서비스 MS 델브(Delve) 및 챗봇 서비스 팀즈(teams) 등을 공개하였다.³⁷⁾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의 집합체이자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다.

36) 박성현(2020). KASSE특집(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KASSE MAGAZINE』 p9.

37) KOSME(2020). KOSME 산업분석 Report 빅데이터. 융합금융처 산업 Report2020-3호. pp29-30

기업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셈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라는 원석을 발굴하고 보관,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음새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각종 업무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³⁸⁾

빅데이터는 웹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남겨진 유입경로나 검색어, 클릭한 게시물 등 이용자 흔적이 담긴 로그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 주로 입력하는 키워드 등을 토대로 콘텐츠나 키워드 등을 추천해 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나 내비게이션 양상을 파악하여 웹 사이트의 구조를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웹 정보환경 기록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로그기록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검색도구를 개발하여 어떤 검색도구가 이용자들에게 더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검색도구를 연구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³⁹⁾

2.3. 인공지능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로 구현한 지능 또는 이와 관련한 전산학의 연구 분야로서 인간의 인지능력(언어·음성·시각·감성 등), 학습능력, 추론능력 등 인간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분야를 말한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6년 스탠퍼드대학의 존 매카시(John McCarthy) 교수가 미국 다트머스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메모리 처리속도 및 시스템적 한계로 인한 장기간의 AI 암흑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 축적과 이를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와 저장 용량의 증가, 학습 알고리즘(딥러닝)의 진화에 힘입어 최근 AI 부흥기에 진입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비서 등 전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산업 분야에서 지능화를 통한 혁신

38)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란? (국립중앙과학관 - 빅데이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

39) 진주영(2018).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빅 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술을 선보이며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사회 제도의 변화까지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⁴⁰⁾ 인공지능의 기술적 분야와 개념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인간 이상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사고 능력의 수준에 따라 또는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일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과 약한 인공지능(Weak AI)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하여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화를 거듭한다.⁴¹⁾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 및 사고하는 인간형 인공지능과 인간과 다른 형태의 사고능력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비인간형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은 이러한 강한 인공지능이 자가발전을 통해 진화한 형태이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할 수는 없어도 지능의 범위를 좁혀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인공지능을 뜻하며,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narrow AI) 또는 응용 인공지능(applied AI)이라고 한다. 약한 인공지능은 미리 정의된 규칙을 이용해서 지능을 흉내 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글 딥 마인드의 알파고, IBM의 왓슨처럼 인간의 인지적 능력 중 특정 부분만 사고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습과 추론을 위해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오늘날 인간처럼 생각하는 강한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의 범위를 좁힌 약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인공지능은 또한 기술 연구 분야 또는 서비스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해 주요 기술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크게 학습 및 추론, 언어/음성 인지 기술, 시각/영상 인지 기술, 상황 이해 기술과 기타 응용 및 융합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상에 스며들었다. 스마트폰의 음성비서,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주행자동차,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특정 분야의 기술이라기보다 IT 전반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도 민원상담이나 위험관리 등 점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업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⁴²⁾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대량의 기록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40) 신성필, 현성은, 이강찬, 김성환, 강신각(2019). 『인공지능』, ETRI 표준연구본부, p5.

41)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222.

42)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231.

인공지능의 연구분야 중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부문은 비전(Vision), 음성인식(Speech), 그리고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이용한 기계번역과 챗봇 등이다.

우선 비전은 이미지나 비디오 등의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기록관리에 적용한다면 시청각 기록을 분석하여 인물, 장소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관련 기록과 연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인물이나 장소의 다양한 샘플 데이터를 선정하여 학습시키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음성인식 기술 또한 기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음성 녹음이나 회의 영상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록 읽어 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음성인식 기술의 한계는 한글 처리와 노이즈 문제이다. 대부분의 음성인식 솔루션들이 영어보다 한글 문장의 처리에 상당히 취약하다. 기계 번역이나 음성인식 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글 처리를 위한 말뭉치(Corpus) 개발이 지속되고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를 학습해야 한다.⁴³⁾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2차 세종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 154억 7천만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5년 동안 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자연어처리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수준 또한 향상될 것이다.⁴⁴⁾

마지막으로 챗봇 서비스이다. 챗봇은 봇(bot)의 일종으로 명령방식에 따라 챗봇, 음성인식봇, 개인비서로 구분된다. 애플의 시리가 대표적인 음성 인식봇이며 구글 나우(Now),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Cortana)가 잘 알려진 개인비서 서비스이다. 기록관리에 적용한다면 내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질의 처리, 기록 검색에 대한 답변 등을 수행하는 챗봇 서비스를 상상해 볼 수 있다.⁴⁵⁾

2.4.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물인터넷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 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인 것이다. 기존의

43)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p242-243.

44) 이다비 (2016.10.9). [한국어와 인공지능]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한국어 AI 시대의 기초는 말뭉치…

- 제2의 세종계획 추진해야." 조선비즈. 이음(2017.10.9). 인공지능용 한국어 말뭉치 155억 어절 구축……5년간 175억 지원, 연합뉴스.

45)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241.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에어컨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다.⁴⁶⁾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은 인터넷 등장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다.⁴⁷⁾ 사물인터넷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만 있어서는 안 된다.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다양한 기반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공유 플랫폼, 빅데이터 처리 및 보안 기술이다.⁴⁸⁾ 사물인터넷은 기존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에 다양한 IT 기술을 적용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사람 - 사물 - 서비스가 상호 지능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⁴⁹⁾

사물인터넷은 M2M(Machine to Machine), 유비쿼터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 기존의 기술로부터 파생되었다. 교통카드, 바코드, ATM 기기 등에 활용되다가 네트워크 인프라 발달과 소형 기기 증가에 따라 사람 - 사물 - 서비스 간 통신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기술로 진화하였다. 수년간 스마트홈과 스마트팩토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며 비용절감, 생산효율성 효과를 입증하였다.

맥킨지는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11조 달러로 전망했다(McKinsey & Company 2015). 이처럼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상생활과 업무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앞으로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과 연계하는 형태로 발전하며 지능형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될 확률이 크다.⁵⁰⁾

사물인터넷 기술은 타 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어 원격진료와 웨어러블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전력 분야는 스마트그리드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적용되어 커넥티드카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도입되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농수산식품

46)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p57.

47) [네이버 지식백과]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2016.10.20., 김대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1913&categoryId=58698&cid=42171>

48) 김재생(2015). 사물인터넷의 기술 소개 및 정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13(1), pp18-24.

49) 강정호, 김형주, 전문석(2015). 사물인터넷 시장 및 기술 동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3(1), pp14-17.

50)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223.

분야에서도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푸드 시스템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물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사물인터넷은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갖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연결성, 두 번째는 연결성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즉시성, 세 번째는 연결된 사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확장성이다.

연결성과 즉시성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극 적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이 기술이 갖는 확장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ICT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동화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사물인터넷 기술은 단순한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사물인터넷 기기와 네트워크 인프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기술은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⁵¹⁾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스마트 센서를 통한 보존서고 출입 통제나 스마트 향온향습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스마트 센서를 서고에 부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온습도 데이터가 관리자에게 전송되고 위험 징후가 탐지될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향후에는 나노센서를 중요 기록물에 부착하여 곰팡이나 산화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 매체의 특성상 보존에 취약하거나 처리를 요하는 주요 기록물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먼 미래에는 아마존 물류창고처럼 서가나 기록물 박스를 옮기는 서고물류로봇이 도입될 수도 있다. 서가와 서가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좁아져도 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단, 사물인터넷 기술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적용해야 효과가 높다. 센서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폐기 등 기록의 이동이 많은 기록관리 단계에서는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51)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pp61-65.

수년 전부터 기록물 관리기관들은 RFID를 도입해 왔다. RFID가 부착된 물품과 기록물 등을 인식해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보안기록물의 무단유출을 방지한다. 기록물 보존관리와 RFID가 결합하면 상당한 수준의 업무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 30> 비공개회의록에 RFID



<그림 30>과 같이 보존서고에서 영구 보관 중인 비공개회의록에 RFID태그가 부착돼 있다.⁵²⁾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도 사물인터넷은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만약 LOD 형태로 기록물 정보를 구축했다면 소장 기록과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외부 서비스와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 기록정보를 의미 있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TV 뉴스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보다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당시 사망자 명단을 조회해 보거나 국회의회의록을 통해 당시 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클라우드와 LOD, 사물인터넷 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융합을 통해 기록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방안을 점차 모색해야 할 것이다.⁵³⁾

52) 남정탁(2021.3.28.) 기록(記錄), 법을 일으킨 고귀한 역사 [밀착취재], 세계일보.

53)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p245.

3. 디지털기술의 적용

이 절에서는 디지털기술 적용 유형을 이용자에게 실제 기록정보를 서비스하는 기술영역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내부 업무영역인 기록업무지원 기술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지능화 기술 유형과 세부 기술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지능화 기술 유형

구분		세부 기술 내용
업무 지원 영역	기록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계학습(Machine Learning)/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Descri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요약(Text Summarization) 키워드/메타데이터 추출
	이관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블록체인(Block Chain)
정보서비스 영역	검색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소노미/폭소노미(Taxonomy/ Folksonomy) 자동태깅(Auto-Tag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 검색 지원 - 이미지/영상/음성/ 안면 인식기술
	추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 분석(Bigdata Analytics) -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챗봇(Chat Bot)
콘텐츠 제공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Linked Open Data), 온톨로지(Ont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로봇(Robot) 디바이스

업무지원 기술은 정리 및 기술(Description)과 이관 및 보존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서비스지원 기술은 검색의 고도화, 기록 추천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지원한다. 업무지원 기술에는 기계 학습, 키워드 및 메타데이터 추출,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이 있으며 정보서비스 지원 기술에는 자동 태깅, 챗봇 등이 있다.

먼저 클러스터링, 기계 학습 및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 음성인식은 기록업무를 지원한다. 기존에 관리·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이 생산하는 기록물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문서 요약, 키워드 및 메타데이터의 자동 추출은 메타데이터의 입력과 기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은 물리적인 이관 및 보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고, 블록체인은 기록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챗봇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⁵⁴⁾

3.1. 기록업무 지원 영역에서의 디지털기술

3.1.1. 지능형 회의록 서비스 제공

음성 AI 기술은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집단으로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합성 등을 포함하는 딥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기반기술로 활용된다.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지원 시스템은 실시간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음성인식 엔진을 사용해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 주는 AI 기반 STT(Speech To Text) 솔루션이다.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는 녹음된 음성파일을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식, 실시간 무선 녹음을 통하여 텍스트화하는 방식, 회의장 내 화자 분리를 통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작성·편집하는 방식이 있다.

기존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의 녹음파일을 반복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회의시간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변환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빠르게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어 회의록 작성으로 인한 단순 반복 업무를 개선하고 회의록 담당자의 과도한 피로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회의록 제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텍스트로 변환하여 작업한 회의록의 초안을 수요자에게 좀 더 빠르게 제공할 수도 있으며 회의록 작성 처리 절차의 개선과 신속한 관리체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의 확장이 더욱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환한 텍스트로 바로 초고회의록을 제공하기에는 그 정확도와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한 단계이며 회의록 작성의 보조수단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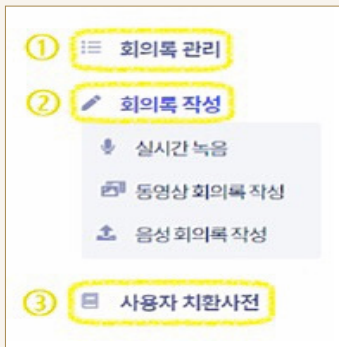
현재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와 있으나 그중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으로는 마음회의록과 클로바노트에 주목해 보려 한다.

54) 김태영, 강주영, 김건, 오효정(2018).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술 현황 분석 및 적용 방안. pp15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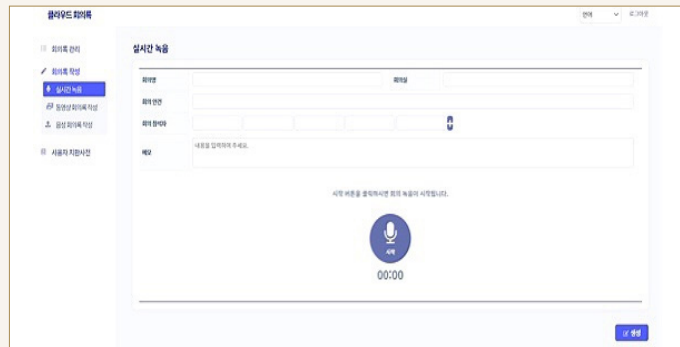
먼저 마인즈랩에서 제공하는 마음회의록⁵⁵⁾은 SaaS 기반 회의록 자동정리 AI 서비스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 마음AI(maum.ai)에 접속하여 회의정보 입력, 회의 녹음파일을 업로드하면 화자가 분리된 텍스트 회의록을 제공해 주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한번 문서화된 회의록은 클라우드상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마다 열람이 가능하다.

마음회의록과 타사의 음성인식 제품 사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온디바이스(On Device) 경량화에 있다. 이는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온디바이스 형태로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온디바이스 AI는 단말기기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지연을 통한 빠른 작업이 가능해진다.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AI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31> 마음회의록 카테고리



<그림 32> 마음회의록 실시간녹음



마음회의록에 들어가면 <그림 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의록 관리, 회의록 작성, 사용자 지원사건 총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32>는 ‘회의록 작성’ 카테고리 중에서 ‘실시간 녹음’에 해당하는 화면인데 회의명, 회의실, 회의 안건 및 참여자 작성 후 녹음을 하고 하단의 ‘생성’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로 변환된 파일이 하나 생성되고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따로 저장도 가능하다.

55) 마인즈랩, SaaS 기반 회의록 자동정리 AI 서비스 & 마음 회의록 & 오픈 [웹사이트]. (2020년 3월). Retrieved from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4> 마인즈랩, 회의록 자동정리 서비스 & 마음회의록 출시 [웹사이트]. (2020년 3월). Retrieved from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94>

이런 회의록 작성은 실시간 녹음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그림 33>에서 보는 것처럼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 회의록 수정도 손쉽게 가능하다.

<그림 33> 마음회의록 열람



<그림 34> 클로바노트 AI 음성기록 서비스



* 2022년 2월 7일(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 음성파일 변환

다음으로 네이버에서 출시한 클로바노트⁵⁶⁾는 AI기술 기반 음성 기록서비스로 문자로 변환된

56) 회의록 작성 · K팝 스타 목소리 재현... 음성 AI 놀라워라 [웹사이트]. (2020년 12월).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20794651>

녹음 내용을 참고해 필요한 내용만 눈으로 보며 듣기가 가능한 음성 기록서비스이다. 앱에서 직접 녹음하거나 음성파일을 업로드하면 해당 내용이 참석자의 목소리까지 구분되어 화면에 출력된다. 기술 실행 가능성의 측면은 키워드 추출, 요약서비스 등의 유사 선행 과제와의 연계,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의록 자료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DB로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클로바노트는 음성 텍스트 변환 인식률이 낮은 단어를 설정하여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링크 공유를 통해 대화 공유가 가능하고 텍스트, 한글 문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언어 번역(한국어, 영어, 일본어)이 가능하고 화상통화 줌과 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울주군, 의령군, 대전 유성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회의장 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회의 시 마이크를 통해 수집된 음성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한 회의록 초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기술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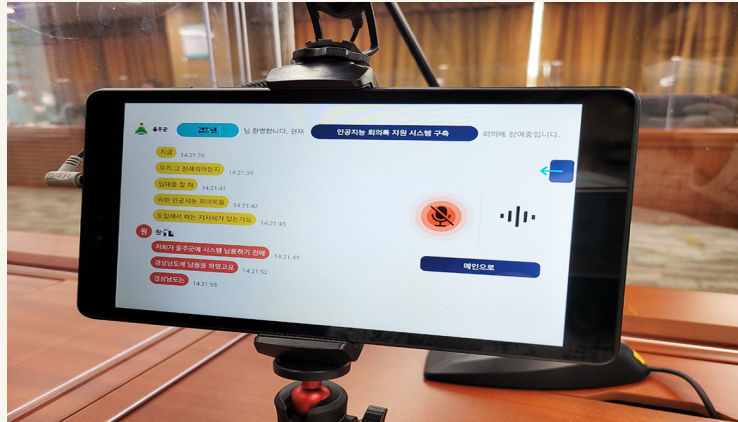
<그림 35> AI회의록 시스템(이동형) 구성도



울산시 울주군이 개발·설치한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시스템은 긴급 재난상황판단회의, 각종 위원회 등 회의 시 참석자별로 특수 마이크시스템을 이용해 발언자의 음성을 분리하는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문서화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실시간 회의록 작성, 음성·동영상·녹음회의록 작성, 녹음회의록 청취 수정·편집 기능, 회의록 다운로드 기능이 가능하다. 2020년 11월 개발에 착수하여 2021년 2월에 구축 완료한 ‘인공지능 회의록’은 그동안 울주군에서 개최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 내용을 인공지능에게 반복적으로 딥러닝시켰다. 회의실 고정형 시스템과는 달리 태블릿PC 기반의 일체형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재난 상황 등 전원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그림 36>은 울산 울주군이 구축한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 장비이다. 음성송신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화면에 회의 참석자의 발언이 문자로 변환돼 나타나고 있다. 회의실에는 자리마다 마이크가 달린 손바닥 크기의 태블릿이 설치되고 작은 삼각대에 세워진 태블릿은 연결된 선도 없� 한 손으로 들고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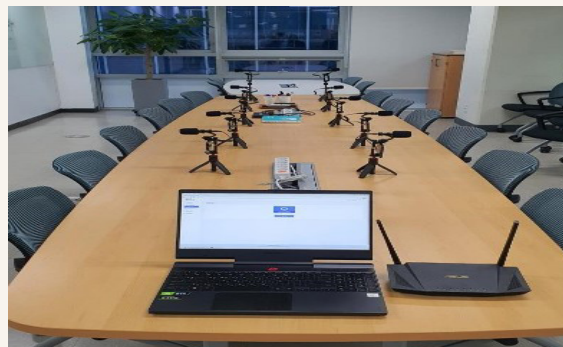
<그림 36> 울주군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 시스템



회의가 시작되면 참석자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곧바로 태블릿 화면에 문자로 나타나고 SNS 메신저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듯 문자화된 글 옆에는 시간이 초 단위까지 표시된다. 참석자마다 빨간색, 노란색 등 글자의 배경색이 달라 발언하는 이들을 한눈에 구분할 수도 있다.

회의가 종료되고 1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의록은 완성되고 그 회의록은 문자화된 문서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도 저장돼 있어 참가자의 발언을 직접 음성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37> 울주군 회의장 설치 모습



이렇게 작성된 회의 내용은 실시간 텍스트화하여 회의록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방식의 회의록 작성 방식을 지원한다.

<그림 38> 시스템을 이용한 회의록 관리 시스템



3.1.2 챗봇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친화적 인터페이스인 챗봇이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문자, 음성 등을 활용하는 챗봇은 상담 등 고객 대응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성장 중이다. IoT 스피커 등과 융합돼 디지털 만능 도우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챗봇(Chatbot)이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챗봇 서비스는 사전상 대화형 인터페이스상에서 규칙 또는 인공지능으로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어려운 IT 용어를 쓰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챗봇이란 인공지능을 적용한 대화하는 로봇을 말한다. 컴퓨터가 인간의 대화를 기계적으로 학습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것인데 산업 분야에서는 ‘가상 비서(Virtual Secretary)’, ‘가상 상담원(Virtual Agent)’ 역할을 한다.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한다. 상황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추천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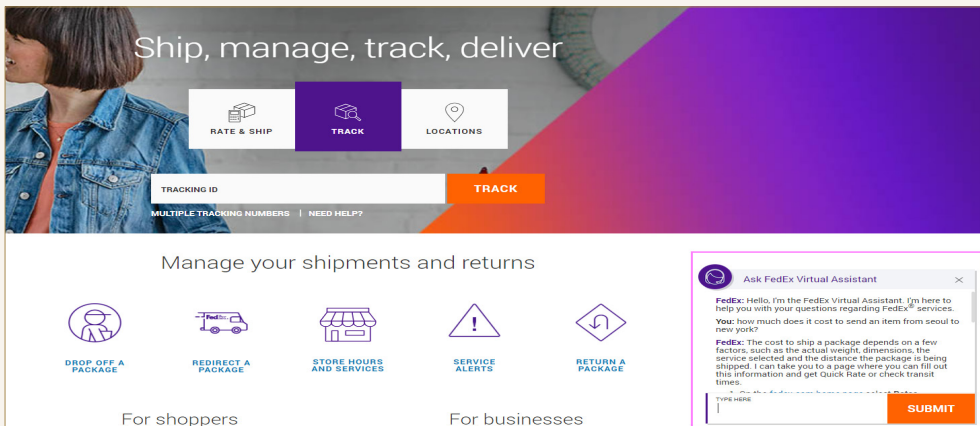
이러한 챗봇이 국회회의록시스템과 만난다면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문자와 음성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시각, 청각, 기타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로봇의 특성상 항상 일정 수준의 일처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또한 가능하다.⁵⁷⁾

57)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pp15-24

모바일의 경우 국회의회의록시스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을 통해 이용자와 보다 빠르게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한국인의 카카오톡 이용률은 92%에 달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챗봇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챗봇의 기능은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챗봇에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생성모델과 검색모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대화 데이터를 넣어 이를 바탕으로 기계가 말을 생성하게 하는 방법이 생성모델이며, 예상되는 질문과 대답의 쌍을 미리 만들어 놓고 상대방의 질문 의도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는 답을 검색해 출력해 내는 방식이 검색모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챗봇에 입력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검색자 개인적 역할에 의존해 이용자에게 대응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 최적화된 챗봇 기능을 마련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림 39> 페덱스 웹사이트 챗봇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챗봇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사례로는 페덱스 웹사이트(58)가 있다.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덱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Ask FedEx’라는 탭이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지점 정보를 알려 줘’라고 물어보면 웹사이트의

58) 페덱스 [웹사이트] <http://www.fedex.com/us>

지점 찾기 메뉴를 링크로 연결해 준다. ‘LA에서 서울까지 오는 택배용품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라고 물어보면 웹사이트의 해당 메뉴로 연결해 주며 어떤 단계를 밟으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해 준다.

이 챗봇은 이용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1=2’가 아니라 ‘1+1의 답은 우리 사이트의 여기에 나와 있으니깐 여기로 가 봐라’라는 방식이다. 페덱스 챗봇은 인공지능으로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일지라도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보다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⁵⁹⁾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도 카카오톡이나 메신저와 같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챗봇 기능을 추가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서도 챗봇을 활용할 수 있다. 타 부서 직원들은 번거롭게 홈페이지를 찾아 헤매면서 원하는 질문의 답을 찾기보다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통 걸어 질문하려 한다. 의정기록과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자구정정요구나 비공개회의록 열람 신청 등일 것이다. FAQ(자주 묻는 질문)의 질문을 챗봇 기능에 추가하여 의원실이나 위원회 행정실 직원이 국회의회의록시스템의 챗봇에 ‘자구정정요구’라고 입력하면 페덱스의 챗봇처럼 해당 서식 파일로 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3.2. 기록서비스 지원영역에서의 디지털기술

3.2.1. 회의록 검색·열람 서비스 강화

일상용어 검색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검색해서 관련 법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검색은 국민이 정확한 법률안을 알지 못하더라도 빅데이터, AI의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용어로 검색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법률안을 찾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59) 챗봇의 역할은 ‘수다꾼’이 아닌 효율성. 알고리즘보다 데이터 품질 높여야 [웹사이트]. (2017년 7월)

https://dbr.donga.com/article/view/1101/article_no/8181/ac/special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말한다.⁶⁰⁾

하지만 국회의원기록시스템에서 민식이법으로 검색했을 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 내용을 바로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AI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민식이법’, ‘임대차 3법’ 등 일상용어나 문장형으로 검색해도 관련 회의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 사례로는 ‘유렉스(U-LEX)’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으로서 일반적인 문장으로 검색하여도 의미를 이해하여 관련 법령 리스트를 제시한다. 또한 각각의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상하위 관계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며 이에 따른 정보 필터링이 가능하다. ‘왕따’, ‘보이스피싱’ 등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검색하여도 의미를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⁶¹⁾

<그림 40>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유렉스(U-LEX) ‘민식이법’ 검색 결과

The screenshot shows the U-LEX interface with the search term '민식이법' entered. The results are categorized into 'A.I. 추천 법령' (Recommended Laws) and 'A.I. 추천 판례' (Recommended Court Cases).

A.I. 추천 법령

전체 (554)	법률 (249)	시행령 (128)
시행규칙 (30)	행정규칙 (104)	자치법규 (44)
기타 (0)		

A.I. 추천 판례

전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헌법	기타
11,577	8,119	1,063	61	525	113	34	1,481	181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판 0

국방과학연구소법 판 44

민법 판 4,165

도로교통법 판 1,096

방위사업법 판 7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판 0

형법 판 1,325

판례

헌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05.26 각하(4호) 2020헌마710 결정문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건의 사고에서 해당 범인이 금고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므로, 교통사고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교통사고 및 그에 대한 공소제기, 판결선고와 어떠한 법적 관련...

형사 민방위기본법위반집33(3)형,582;공1985.11.1.(763),1373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도1412 판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는 집에 내왕하여 왔다는 것이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시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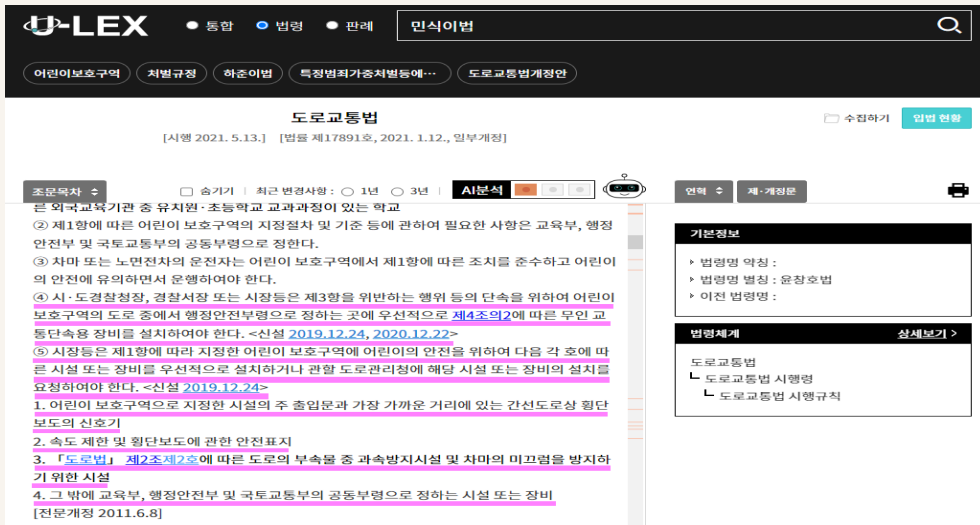
형사 민의원선거법위반
대법원 1959.10.16 자 4291형항14 결정
불 수 없고 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다른 미군정법령과 같이 저축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항은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었음은 형사법규 해석상의 대원칙임으로 6월 이하의 징역을 언도 받은 피고인의 보석에 대한 법 제9조의...

60)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61)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유렉스[웹사이트]http://intellicon.co.kr/?page_id=2739

<그림 4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민식이법’이라고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가 검색된다. 좌측에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들이 검색되고 우측에는 여러 판례들이 나와 있다. 도로교통법을 클릭하면 국회에서 논의 끝에 신설된 법률 조항이 나타나고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강조가 되어 민식이법, 즉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요 조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41>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유렉스(U-LEX) ‘도로교통법’ 검색 결과



이를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적용해 보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검색 기능을 넣고 그곳에 일반어 혹은 문장형으로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관련 법률과 그 법률의 논의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민식이법’이라는 용어가 기록된 모든 회의록이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통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 회의록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회회의록시스템은 안전이나 내용을 검색했을 때 관련 회의록이 나타나지만 해당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저장된 파일을 열면 내가 검색했던 안전이나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별도의 뷰 프로그램 없이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도입하고 유렉스 시스템과 같이 찾고자 하는 안전명 혹은 관련 내용이 하이라이트나 다른 기능 등을 통해 강조되어 이용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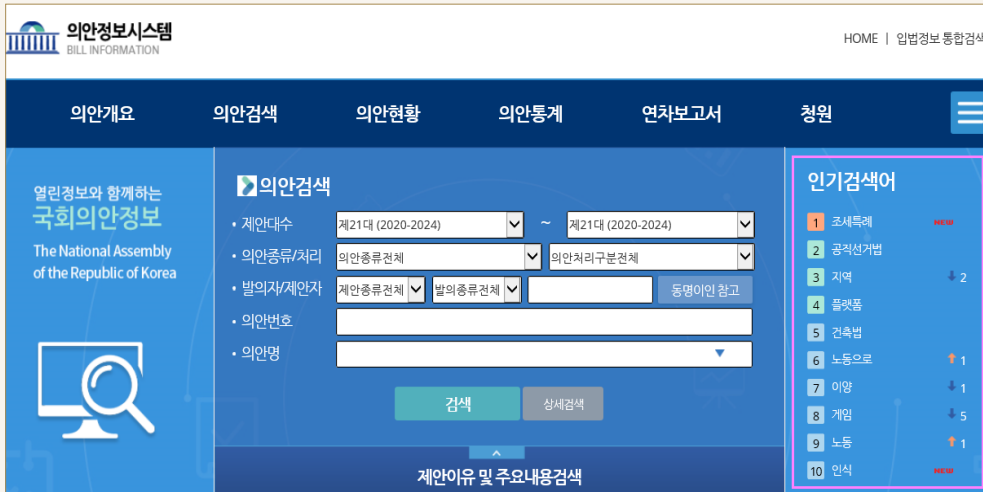
이용자들의 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를 보여 줌으로써 사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돕는 검색어 추천 서비스로는 실시간 검색어, 연관 검색어, 다른 이용자들이 찾은 검색어 등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다. 실시간 검색어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하는 용어를 제공하는 이용자 서비스로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의 실시간 관심사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려 줄 수 있고, 이것을 본 다른 이용자들은 찾고자 하는 기록물 외에 다른 콘텐츠나 기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처음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찾고자 하는 명확한 정보의 제목을 모른다면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결과를 탐색 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조금씩 검색결과를 좁혀 가는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연관 검색어 또는 추천 검색어, 다른 이용자들이 찾은 검색어 등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회의록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가장 날 것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신속성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속성으로 인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결여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회의록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검색 순위, 연관 검색어, 다른 이용자 검색어 추천 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현재 일어나는 이슈, 사건들과 관련이 깊은 단어들이다. 이러한 실시간급상승 검색어를 분석한 어느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표심을 예측해 냈고 대통령의 당선도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실시간 검색어 분석을 통하여 현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등을 추출해 낼 수도 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⁶²⁾에서도 인기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인 화면 우측에 위치한 인기검색어 1위 조세특례를 클릭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현재 어떤 법안이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관련 의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62)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그림 42> 의안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하지만 이 검색어들은 일상용어가 아닌 법률용어에 국한된 것으로 이용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민식이법’이라는 용어만 알고 있으면 의안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안정보시스템의 인기검색어에서도 민식이법이라는 일상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국회의회의록시스템 메인 화면에 비트코인, 임대차 3법, LH 부동산 투기, 코로나19 등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검색 순위나 연관 검색어 등에 나타나고 그것을 클릭하면 관련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편의성은 물론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회의록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⁶³⁾에 따르면 국회의회의록시스템 이용자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요인이 검색 기능이라고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검색의 정확성이 낮으므로 검색 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는 다양한 검색도구를 통해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도 AI 기반 검색 기능 활용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검색 기능의 구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63) 국회도서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출한 의회회의록의 접근성 강화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의 제3장

3.2.2. 국회의회의록 자동 요약 서비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학문 분야로서 인간의 언어 현상을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묘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질의응답 시스템, 사람이 키워드만 보내도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챗봇’,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스피커,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면 문장과 단어를 분석해 만족도를 살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⁶⁴⁾

자동 문서 요약이란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문서 내의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면서 긴 문서를 짧은 요약문으로 압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정보 기술의 혁신에 의해 웹 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서를 짧게 요약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동적인 문서 요약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 요약 기술을 통해 사람이 문서 전체를 읽는 대신 빠르게 핵심 내용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년에 걸쳐 자동 문서 요약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제안되었으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추출(extractive) 요약과 생성(abstractive) 요약이다. 추출 요약은 문서 내의 중요한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추출하여 요약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생성 요약은 구문을 바꾸고 문장을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요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성 요약 시스템에 추출 요약 기법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법도 다수 제안되었다. 하이브리드 방법의 하나인 문장 재작성(sentence rewriting) 패러다임은 사람이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을 모사하여 중요한 문장을 추출한 후 이를 재구성하고 구문을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 요약문을 작성한다. 이러한 방법은 문서 내의 중요한 정보를 고르는 일과 문장을 실제로 작성하는 일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요약문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병렬적인 문장 생성이 가능하여 요약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장 재작성 방법의 선행 연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제한된 성능을 보였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요약문 수준에서의 최적화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소멸이나 신규 기술의 대체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해야 한다.⁶⁵⁾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시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추출 요약 방식을 통해 국회의회의록 자동 요약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 요약은 문서 내의 중요한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추출하여 요약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64) 자연어 처리(NLP) 기술이란? [웹사이트]. 2020년 11월 <https://brunch.co.kr/@natrsci/83>

65) 배상환(2019).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을 위한 요약문 수준 학습 기법.

관련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출시한 ‘사이언스온’⁶⁶⁾이 있다. 이는 AI가 논문을 읽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와 같은 정형화된 정보만 사용하여 논문을 찾고 읽었다. 논문의 논증적 의미 구조에서 제시된 3개 요소(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문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없어 직접 읽어 보고 정리해야만 했다. 이에 KISTI는 AI 딥러닝 요약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논문 원본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며 논문에 대한 질의응답 또한 요약이 가능해졌다.

<그림 43> 사이언스온(SCIENCE ON) 논문 요약 서비스

그 동안 연구보전학계에서는 지파 방사선사를 신태화 권자들의 인상에 관하여 다양한 조사 연구가 있었다. 최근 지파위생사들의 디지털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사선 관련 지식과 신태화사를 통하여 방사선에 대한 지식 정도는 높지만 안전방어에 대한 실천률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이 신태화는 생인의 구강 방사선 촬영에 대한 인식도에서 지파 내원 시 방사선 촬영의 빈도는 높은 반면 방사선에 대한 설명이나 보호 장비 착용은 비교적 미흡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핵사는 권자들에게 지파 방사선 촬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전달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상 의학과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파 고매의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정보 파악은 TV나 신문 등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7-11) 방사선 촬영 시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경인을 대상으로 지파 방사선에 대한 인식 및 신태화 파악하고, 지파 방사선 노출 경험에 따른 인식이 불안감 등을 조사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지파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림 44> 사이언스온(SCIENCE ON) 논문 질의응답 요약 서비스

1. 의료기관 프로세스 통합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정형화 및 구조적 이상 현상 검증 기법 (Business Process Model Formalization and Structural Anomaly Verification Techniques for Integrated Process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김건우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성혁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7, pp. 177 - 193, 2018, 1598-4877, 한국콘텐츠학회

핵심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질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프로세스 모델의 구조적 관점에서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시작 이벤트를 통하여 프로세스 시작을 알리는 트리거(trigger) 액션을 취하고 1개의 토큰을 다음 모델링 객체로 보내게 된다. 다음 모델링 객체가 태스크일 경우, 시작 이벤트에서 들어온 토큰 개수가 태스크 내부에 선언된 StartQuantity요소의 토큰 개수와 일치할 때만 실행되며 CompletionQuantity요소에 선언된 토큰의 개수만큼 다음 모델링 객체로 보내게 된다. 게이트웨이가 다음 모델링 객체로 사용될 경우 게이트웨이의 유형에 따라 토큰을 분기 또는 병합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종료 이벤트는 들어오는 토큰을 받으면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결과 값을 보내게 된다

핵심어	BPMS
질문	BPMS의 특징은 무엇인가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표기법인 BPMN (Business Process Model Notation)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모델을 작성하고 런타임 시 실행 가능한 언어인 WS-BPEL(Web Services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로 자동 변환 후 프로세스 엔진을 통해 실행하는 모델 기반 자동화 프로세스 도구로서 병행 업무의 단순 자동화나 인력 절감 효과보다는 프로세스 수준의 업무 개선과 의료기관 간 프로세스 통합에 초점을 맞춘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특화 솔루션이다

66)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SCIENCE ON [웹사이트] <https://scienceon.kisti.re.kr/aiq/mlsh3/selectAIQmlshList2.do>

<그림 43>은 논문의 수많은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문단을 추출하여 연구 주제로 요약한 내용이며, <그림 44>는 질의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여 논문 본문에서 추출한 답변을 보여 주고 있다.

국회법 제58조⁶⁷⁾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다.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다. 국회의회의록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속기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국회의회의록시스템을 통해 가공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문장으로 인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주된 내용, 의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논문요약시스템을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 적용해 본다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3.2.3. 메일링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기 전에 작성된 회의록을 일정 기간 내에 발언 의원별로 분류하여 해당 의원실에 메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시스템에 직접 방문하는 현재까지의 국회의회의록 서비스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완성 전 단계의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음성인식 시스템을 적용한 초고 수준의 회의록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미흡하므로 어느 정도 수준의 초고를 제공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이다.

물론 현재도 회의록 발간 전이나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 등록되기 전에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⁶⁸⁾하고 있기는 하나 일일이 메일주소를 확인하고 발송하는 다소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 의원이 자구정정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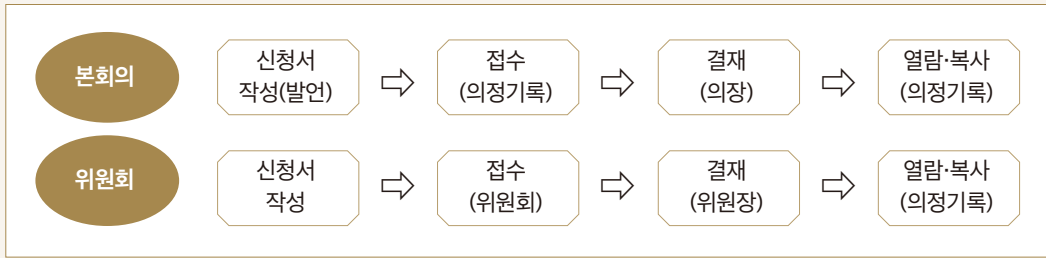
67) 국회법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68) 회의록 발간 전 발언 내용의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 등의 허가를 얻어 초고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등록 이전의 회의 내용으므로 배포용문서(인쇄만 가능)로 제공된다.

- 회의록원고 · 열람복사신청서 : 국회의회의록시스템-회의록 개요-회의록 관련서식 중 별지 제8호 서식

발언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정정을 요구⁶⁹⁾하면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회의록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원실과 회의록 담당 부서와 교류가 원활해짐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림 45> 초고 회의록의 신청 및 열람 절차



IV. 결론

지난 시대의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 된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기록된 국회회의록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회의록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존만큼이나 중요하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록에 들어 있는 정보가 여러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부서에서는 방대한 기록을 정교하게 처리하고 수요자가 신속히 회의록을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록의 생산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9) 국회법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는 이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을 더욱 앞당겼다. 국가적·사회적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기록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기록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회의록시스템 사례를 통해 현재의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개선점을 찾아보고 회의록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이 깊은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기술들을 선별하여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그 적용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차세대 기록 생산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은 기록하고 관리하는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다. 기록전문가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기술환경의 변화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해지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이 변화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술발전과 함께 커 가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 중 속기사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술은 음성인식 기술이다. 물론 음성인식 기술만으로 완전한 기록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음성인식 시스템의 인식률은 지속적인 딥러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음성 외 다른 조건은 정확히 기록할 수가 없다. 회의록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시하는 방향 및 행동 양식은 물론 현장의 상황까지도 기록해야 하는 종합적인 기록물이지만 음성인식은 음성의 인식일 뿐이고 발언의 의도까지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음성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고 앞으로 음성인식 기술이 더욱 발전하더라도 비언어적인 부분, 미묘한 의미 전달이나 중의적인 표현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속기사관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의식도 빼놓을 수 없다. 회의록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까지 담보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책임과 신뢰하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규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 또한 음성인식 기술의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⁰⁾

이처럼 음성인식 기술의 순기능과 더불어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에 음성인식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음성인식 기술의 역할과 속기사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70) 김효정(2018.9.13.). 4차 산업혁명에도 굳건, 기록전문가 시속기사. 에듀팡.

<https://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11531>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은 기술에 맡기고 속기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요컨대 음성인식 시스템이 민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역할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기존의 업무 개념을 재구성하고 음성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좀 더 정확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속기를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반복되는 입력작업은 자동처리하고 수정·검수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속기사가 담당하는 등의 협업을 한다면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¹⁾

기록 생산 및 관리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은 시대적 과제이다. 앞으로 많은 기록전문가들이 과거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기록관리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전하여 한국의 기록관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차세대 기록생산 및 관리의 틀을 설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회의록 서비스 제공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71) 2021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2021). 공공기록물의 관리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p56-57.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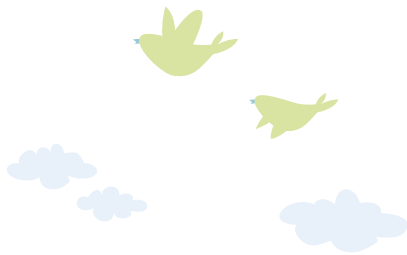
【국내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우수성과 사례집』.
- 2021의회의록발전연구모임(2021). 공공기록물의 관리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윤대근, 남태우(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국회의사무처(2018).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 문선희(2019). 국회 회의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이준원(2020). 웹 환경에서 회의록 검색과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 윤대근, 남태우(2011). 국회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44-164
- 최기희(2018). 영국의회 회의록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가이드(2018).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 안대진, 임진희(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211-248.
- 임진희(2019). 클라우드 저장소 장점을 활용한 기록 콘텐츠 관리기능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271-292.
- 최경진 외(2012)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홍덕용(2021). 공공기록관리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법과 시사점 제안.
- 박성현(2020). KASSE특집(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KASSE MAGAZINE』 p8-9.
- KOSME(2020). 『KOSME 산업분석 Report 빅데이터』. 융합금융처 산업 Report2020-3호.
- 진주영(2018).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빅 데이터 분석과 활용.
- 신성필, 현성은, 이강찬, 김성한, 강신각(2019). 『인공지능』, ETRI 표준연구본부.
- 김인택, 안대진, 이해영(2017).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관리 방안. 『한국기록학회지』, 17(4), 225-250.
- 김재생(2015). 사물인터넷의 기술 소개 및 정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13(1), 18-24.
- 강정호, 김형주, 전문석(2015). 사물인터넷 시장 및 기술 동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3(1), 14-17.
- 안대진(2017).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기록인(IN)』, 제41호, 38-45
- 김태영, 강주영, 김건, 오효정(2018).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술 현황 분석 및 적용 방안.
- 배상환(2019).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을 위한 요약문 수준 학습 기법.
- 주현우(2018).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기록관리 현재와 미래.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63-64.

【웹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두산백과).
_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50825&cid=40942&categoryId=32828>
-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란? (국립중앙과학관 - 빅데이터).
_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
- [네이버 지식백과]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2016.10.20., 김대호).
_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1913&categoryId=58698&cid=42171>
- 이다비 (2016.10.9). [한국어와 인공지능]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한국어 AI 시대의 기초는 말뭉치…제2의 세종계획 추진해야.” 조선비즈.
_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9/2016100900328.html
- 이웅 (2017.10.9), 인공지능용 한국어 말뭉치 155억어절 구축… 5년간 175억 지원. 연합뉴스.
_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8/0200000000AKR20171008048600005.HTML>
- 남정탁(2021.3.28.) 기록(記錄), 법을 일으킨 고귀한 역사 [밀착취재], 세계일보.
_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23519211?OutUrl=naver>
- 정한영(2020.3.4) 마인즈랩, SaaS 기반 회의록 자동정리 AI 서비스 ‘마음 회의록’ 오픈. 인공지능신문.
_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4>
- 김성수(2020.3.5) 마인즈랩, 회의록 자동정리 서비스 ‘마음회의록’ 출시. IT DAILY.
_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94>
- 김주완(2020.12.7.) 회의록 작성 · K팝 스타 목소리 재현… 음성 AI 놀라워라! 한경.
_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20794651>
- 김효정(2018.9.13.). 4차 산업혁명에도 굳건, 기록전문가 시속기사. 에듀팡.
_ <https://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11531>
- 박정남(2017.7.) 챗봇의 역할은 ‘수다꾼’이 아닌 효율성. 알고리즘보다 데이터 품질 높여야. 동아. 스페셜리포트.
_ https://dbr.donga.com/article/view/1101/article_no/8181/ac/special

속기학원은 천직이다



이수만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원장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

2020년 2월부터 21, 22, 23년 3월까지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들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았다. 우리 속기계도 운영이 어려워 속기학원의 문을 닫은 곳이 많다. 나 역시 돈만을 생각했다면 오래전에 폐원(閉院)을 하고 다른 것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속기학원은 나의 천직(天職: 타고난 직업이나 직분)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수강생이 1명이나 2명뿐이라도 결코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때는 대구 경북에 컴퓨터속기학원이 8곳이었으나 지금은 한 곳밖에 없다. 길을 가다보면 오르막이 있다가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다가 오르막도 있기 마련이다.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 직전에 학원 앞 한의원이 나가버렸다. 월세 350만 원을 받던 것이 도리어 관리비를 매월 80만 원씩 물어야 하고 은행 빚 이자는 자꾸 올라서 3년간 마음고생이 참으로 많았다. 그런데 지난 2월 말 치과의원에 계약, 5월부터 월세를 받게 되어서 걱정을 덜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경우는 과거에도 몇 번 겪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부원장이 다니고 있는 수강생을 대부분 데리고 나가서 바로 옆 건물에서 ‘타자속기’를 ‘컴퓨터속기’라고 가르칠 때 너무나 힘들었다. 그 후 일반 키보드에 약자를 넣은 ‘넥스젠’이라는 컴퓨터속기를 가르쳤으나 합격자를 내지 못해 망해서 속기계를 떠났고, 나는 대구 최초 ‘CAS’ 컴퓨터속기를 가르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나한테 수필속기를 배운 사람들이 지방의회에서 속기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정년 퇴직을 하고 있다.

내가 속기를 처음 접한 것은 1965년 군위군 의흥중학교 3학년 때이다. 전주에서 오신 정아랑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한글기음식 속기를 특강하고 가시면서 프린트물로 된 서너장의 한글속기 맛보기를 팔고 가셨는데, 나는 전교 학생회장이라서 공짜로 얻어서 보았다. 대구상고에 입학은 했으나 상업과목에 흥미를 잃어 웅변을 배우면서 속기학원을 찾았으나 대구에는 한 곳도 없었다. 그래서 서점과 헌책방을 뒤져 여러 가지 속기책을 샀다. 그러나 같은 글자는 ‘가’자 밖에 없고 다 달랐다. 내가 익힌 정아랑 선생이 지은 유인물을 기본으로 해서, 남천식 일파식 등 속기를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1969년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다니면서 한국웅변속기연구원을 차려 웅변과 속기를 가르쳤다. 결혼 후 군위군과 경상북도에서 행정공원을 4년간 한 후 영남일보 기자 시험에 합격이 되어 언론계로 자리를 옮겼으나,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대구매일신문사로 넘어갔다. 신문사를 두 개 합했으니 기자가 배로 많아져서 사직을 강요받고,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웅변은 제자들이 웅변 스피치학원을 하고 있어, 상도의 상 할 수 없어 못하고, 속기 과외교습으로 한국속기연구원을 개원하여 언론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니던 신문사에서 ‘넘버원을 찾아서’ 라는 시리즈에 ‘속기사 이수만 씨’라고 대문짝만하게 소개되어서 난리가 났다.

그 기사를 신문사 간부들이 보고 사회부 기자를 시켜주어서 속기학원과 신문기자를 같이 할 수 있었다. 속기학원에 부원장, 강사, 상담, 경리, 운전기사 등 6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했다. 대한민국에서 말단 기자가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애들이 어려서 돈을 쓸 사람이 없어 몇 년 만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1988년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특별보좌역에 발탁되어 제13대 총선에 출마해서 엄청난 돈을 내버렸다. 유승민 전 의원의 아버지 유수호 변호사(노태우 대통령 동기), 김현규 의원(신민당 원내총무) 등과 경쟁을 하였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이었다.

어쨌든 속기학원 덕분에 대구 중구에서 국회의원 세 번, 중구청장 두 번, 대경신문 발행인(대표) 등으로 많은 돈을 내버릴 수 있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정말 너무나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백퍼센트 만족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사남매가 제때

결혼해서 한 집에 둘씩 애를 낳아서 8명의 손자 손녀로 부자다. 모두 건강하고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공부를 잘하니 기분이 좋다.

우리 집은 속기사 가족이다. 장남은 속기학원 부원장 겸 한국녹취사무소 대표이며, 큰 며느리도 속기 자격증을 따서 녹취사무소 일을 하고 있다. 딸 둘도 컴퓨터속기 자격증을 따서 법원 속기직 공무원을 한 지 오래되었다. 차남만 속기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딸 둘 중 하나는 속기직 공무원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내 나이 벌써 70대 중반으로 빠르면 5년 길어야 10년 여생이지만 요즘도 열심히 살고 있다. 오전 8시에 집을 나서면 지하철을 타고 8시반 속기학원에 도착, 9시 반까지 속기를 가르치고, 가까운 유림(儒林)단체인 춘추회(春秋會)에 출근해서 상임부회장으로, 또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본 후 매일 지인들과 맛있는 중식을 먹는다, 오후에도 속기학원에 가서 내일 교재 녹음을 한 후 3시 반 속기 강의를 한 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저녁 6시 반부터 야간반 지도를 한 후 빨라야 8시 반에 아내와 퇴근을 한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제56회 정기총회

- 대한속기협회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18시 30분에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정숙 총무재정이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성원보고가 있었다.
- 그리고 제30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는데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정지은 회원, 은상 김명진 회원, 동상 강지혜 회원으로 시상은 이주성 회장이 해 주셨다.
- 다음으로 이주성 회장의 퇴임사가 있었고, 협회에서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 손숙자 이사장이 회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장을 대리하여 의장단에 등단해 참석하신 귀빈들을 소개하였다.
- 이후 회의는 손숙자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고, 먼저 회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하고 통과시킨 다음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손숙자 이사장으로부터 결산서 설명을 들은 후 이강욱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모든 회원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는 후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 그리고 협회가 독립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회원들은 회비를 면제한다는 이사장의 발표가 있었다.
- 다음 세 번째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는 이주성 회장 후임으로, 조정구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이강욱, 문선희를 재임하는 원안을 가결하였다.
- 네 번째 기타사항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이상 4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6회 정기총회를 폐회했다.



대한속기협회 블로그 개설

- 대한속기협회는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대한속기협회' 블로그를 개설했다.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배너에서 (사)대한속기협회 공식블로그를 클릭하면 블로그를 볼 수 있다.
- 주소 : <https://blog.naver.com/korea-steno>



2023년 제1차 지방의회 속기실무과정 연수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위탁사업인 2023년 지방의회 속기실무과정 연수가 성황리에 끝났다.
- 이번에는 41개 의회에서 66명이 5월 31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 2박3일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회의록 작성실무 및 기타 실무에 관한 연수를 받았다.
- 올해부터 지방의회 속기사에게 양질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방의회 속기실무과정 연수를 두 차례 할 예정이다.
- 2차 연수는 10월 24일(화)부터 10월 26일(목)까지이며, 장소는 의정관 105호이다.



2023년 9월 인터스테노 (프랑스 보르도) 참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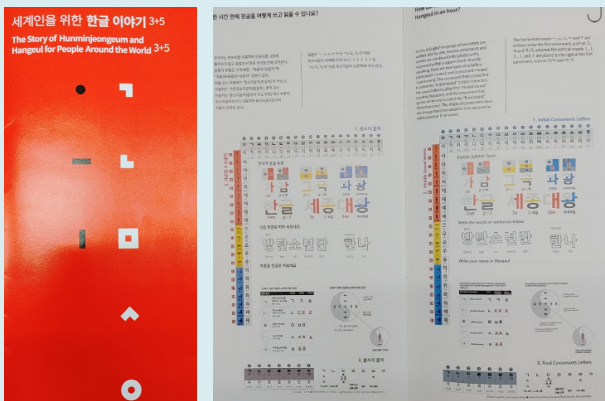
- 대한속기협회는 2023년 9월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리는 INTSENO COUNCIL & IPRS MEETING에 참가한다.
- 회의기간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조정구 회장, 손숙자 이사장, 김점동 이사, 신은경 이사, 최상원 이사, 서울시의회 박승희님, 강남형님 모두 7명이다.



- 2023년 INTSENO COUNCIL & IPRS MEETING에서는 2030 부산엑스포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준비했다.



2030부산세계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각국 대표들에게 줄 기념품과 홍보물(2030 부산세계엑스포위원회 제공)



세종국어문화원에서 만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물

투고를 바랍니다



* * * *

“속기계”는 속기문화를 창달하는 대한속기협회의 기관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한 속기연구를 발표하는 열린 언론 공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격조 높은 글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 보내실 곳 :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 홈페이지 : www.k-steno.com
- 연락처 : 전화 02-6743-0040 / 팩스 02-2632-9519



제59호 속기계

- 발행인 : 조정구
- 편집책임자 : 손숙자
- 편집위원장 : 박호규
- 편집위원 : 김점동, 신은경, 정상덕
- 발행일 : 2023. 9.
-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60 메가벤처타워 705호
Tel : 02-6743-0040
- 홈페이지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www.k-steno.com
- 디자인·인쇄 : 제이기획 010-5233-4439

비매품

기록의 마술사, 전국 속기사들의 이유있는 선택! 강남아이디안과와 특별한 제휴혜택



81가지 안 종합검진

검진비 무료



1 DAY SYSTEM

당일검사·수술 가능



부모님 안 검진 가능

노안·백내장 예방



코로나 방역 시스템

매일 원내 소독



1:1 주치의 전담 케어

철저한 개인 맞춤 관리

	수술명	수술 방법	제휴 할인 혜택
시력 교정술	ID Custom 라섹	EX500 White(Custom Q) / 아마리스 레드 2023년형	119만원 → 89 만원
	ID 세이프(SAIV) 라섹	EX500 White(steamlight)	144만원 → 100 만원
	ID 투데이(2DAY) 라섹	아마리스 레드 2023년형, 자가혈청안약	204만원 → 130 만원
	ID 원데이(1DAY) 라섹	Femto LDV Z8	224만원 → 150 만원
	다초점 ID 라섹	노안교정 모노비전, 각막강화술	224만원 → 170 만원
	ID 원데이(1DAY)렌즈삽입술	EVO + Aqua ICL	550만원 → 450 만원
노안교정 백내장	단·다초점렌즈 인공수정체(단안기준)	* 백내장으로 인한 검사 및 진료,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문의



대표원장 **김 중 훈**

노안·백내장, 망막, 시력교정

- 現 강남아이디안과 대표원장
- 백내장 수술 10,000건 이상 집도 (단일 의사 기준)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외래교수
- 대한안과학회(KOS) 정회원
- 미국안과학회(AAO) 정회원
- MBC 《다큐프라임》 출연
- 채널A 《닥터지바고》 출연
- TV조선 《알맹이》 출연
- MBN 《엄지의제왕》 출연

고난도 수술 전문 안과

2 강남역 9번 출구: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 아라타워 3층

| 예약 및 상담 : 02.546.1333

| VIP 담당 번호 : 010.3105.1333

| 카카오톡 예약 : @강남아이디안과

